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SKELETON GENTS

AUTOMATIC SWISS MADE - WWW.HAMILTONWATCH.CO.KR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센터시티점 롯데백화점 본점 강남점 광주점 구리점 김포공항점 노원점 대구점 대구영플라자점 대전점 동래점 부산점 분당점 상인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안산점 안양점 영등포점  
울산점 인천점 일산점 잠실점 중동점 청량리점 정주영플라자점 평촌점 포항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라자 구로본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킨텍스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WALKERHILL DFS

# Style 조선일보

JANUARY 2014 vol.103

*True love has a colour and a name*



*Cartier*

cartier.co.kr





26 30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영완한 행복을 약속하는 트라피 루반 솔리테어 링이다. 순수한 감각과 부드러운 세련미가 돋보이는 독창적인 링으로 0.50카럿부터 4.99카럿까지 선택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트라피의 유명한 고리 세 개가 마법처럼 휘감고 있다. 결혼식, 약혼식, 디너 파티 등 어느 자리에서나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566-7277



14



06

- 08 **MODERN RENAISSANCE PORTRAIT** 이번 시즌 패션 광고는 르네상스 초상화를 닮았다. 2013 F/W 패션 광고와 르네상스 초상화, 그 닮은꼴에 대한 이야기.
- 10 **NEW PRIME ZONE** 시계 브랜드부터 최고의 런처리 브랜드까지, 드디어 서울에 상륙한 최고의 브랜드를 소개한다.
- 12 **BEST NEW COATS** 길어진 추위 속에서 스타일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울거울 베스트 코트를 사수하라.
- 14 **WINTER GLORY** 화려한 하이 주얼리와 이국적인 무드, 드라마틱한 볼륨감이 어우러진 배우 장미희의 패션 모먼트.
- 22 **HOMAGE TO THE MUSE** 시간은 아름다움에 클래식이라는 영광을 더해준다. 여기에 '여배우'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그 상상력은 더 큰 오라를 얻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
- 23 **NATURAL PERFECTION** 타고난 피부 미인이 아니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사철의 CC크림이 있다면 말이다.
- 24 **FACE SHAPER** 흐트러지는 얼굴선을 바로잡고, 통통하게 차오른 젊은 얼굴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피부 탄력 케어에 집중할 것.
- 25 **THE ULTIMATE ESSENCE** 에스티 로더에서 아시아 여성의 피부 고민을 제대로 간파한 혁신적인 에센스를 선보였다.
- 26 **THE DREAM SKIN** 2014년 1월, 기존 코즈메틱 제품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제품과 만나게 된다. '디올 캡처 토탈 드림스킨(Dior Capture Totale Dreamskin)'이 바로 그것이다.
- 27 **MASTERPIECE OF PITERA** SK-II 로열 유자인 백은하 작가가 말하는, LXP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와 아름다운 삶.
- 28 **BAND YOUR AGE** 발람성, 안티에이징 효과, 촉촉함까지 갖춘 화장품, 숏37°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크림을 소개한다.
- 29 **RELAXED LUXE** 눈에 띄는 보디 트러블을 잠재우고 싶다면 보습력이 풍부한 보디 제품을 곁에 둘 것.
- 30 **CREATING NEW OUT OF OLD** 글로벌 차원에서 예술계의 혁신적인 인물들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링컨 리이미진 프로젝트(Lincoln Reimagine Project, LRP)의 면면을 보노라면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시너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 32 **THE LADY'S AUTOMATIC** 오랜 명성을 쌓아온 오메가가 지난 12월 오메가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역사적인 뮤지엄 피스를 전사하며 여성 위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다.
- 34 **SMARTEST HUE** 내 입맛과 몸 상태에 맞는 빛의 미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팔립스의 아심락 유(hue).
- 35 **MARK OF TRUE DESIGN** 스위스에서 시작해 건축적 매력을 담은 시계로 눈길을 사로잡은 워치 브랜드 미도가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개최하며 보다 특별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 36 **SHOE REQUIRED** 사랑에선 구두를 잘 닦아 신는 것이 예뻐졌지만 클름 잘 관리한 구두는 사람의 품격을 좌우한다. 아까운 구두를 더욱 명품으로 빛나게 할 남자 구두 관리법.
- 38 **EDITOR'S PICK** 울거울, 수많은 신제품을 접하는 에디터들의 까다로운 취향을 사로잡은 코즈메틱은 무엇?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들이 직접 써보고 만족한 뷰티 핫리스트.

# Style 조선일보

Issue.103 January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원 | 이@chosun.com 자유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재판 | 시현 그래픽스  
 인쇄 | 타미타미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정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들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Dior

CAPTURE TOTALE

당신이 꿈꾸던 피부.  
 원하는 순간 아름다워지기를,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기를 -

## DREAMSKIN



에이지-디파잉 스킨케어, 여자들이 꿈꾸던, 당신의 마지막 스킨 크리에이터  
 안티에이징 - 화사해진 피부 - 균일한 피부결

타고난 듯 아름다운 피부로 돌려주는 디올의 첫 번째 토탈뷰티케어. 디올 가든에서 추출한 플로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캡처 드림 스킨은 한 번의 터치로, 유타컬 활성성분들을 통해 화사하고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되찾아줍니다. 또한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로 전달되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파워로 그 아름다움은 더 탄탄해지고 더 매끄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디올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 캡처 토탈 드림스킨.

어떤 나이에도, 어떤 피부타입에도, 어떤 피부톤에도





**Jewel GEOMETRIC JEWELRY**

기하학적인 패턴의 반복이 남기는 모던하고 강렬한 메시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우주의 신비로움을 담은 별 모티브 링 가격 미정 **아이리시트**, 건축적인 디자인이 드러난 파르 누블라르 컬렉션 네크리스 가격 미정 **클레오텐**, 부채 모티브를 여러 번 반복해 기하학적 패턴을 완성한 다바 컬렉션 브레이슬릿 7천만원대, 로미오 보도발롱에서 영감을 받은 파넬리 컬렉션 링 2천만원대 모두 **블리제리**, 현형을 걸친 듯 구조적인 디자인에 진주를 매한 링 1백40만원대 **타사기**, 발집 모티브를 비미아 라브 네크리스 2백50만원대 **소메**, 다바 아아링 3천만원대 **블리제리**, 허-비 모티브 비미아 라브 링 2천40만원대 없는 버전 1백만원대, 다이아몬드 플 펠레 세팅 4백70만원대, 하프 다이아몬드 버전 3백만원대 모두 **소메**, 에디터 **베리진**

**Fashion 무통의 귀환**

유형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 무겁고 무거운 무통 재킷이 시크하고 세련된 실루엣으로 돌아왔다. 이크네의 베스트셀러인 오버사이즈 무통 재킷을 필두로 생로랑, 루이 비통 등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인 것. 몽글몽글 짙게 짙은 털을 가공한 무통부터 어린 양의 양피를 털과 함께 가공해 길고 화려한 양털의 텍스처를 살린 무통까지, 이번 시즌은 진정 무통의 전성시대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스탕의 바른 명칭이 바로 무통(mouton)으로 양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급된 보온용 양털 재킷에서 유래한 무통은 털이 풀은 양피를 사용해 매서운 찬 바람에도 끄떡없는 보온력을 자랑한다. 소재 특성상 외일드하고 부해 보이는 이미지가 강해 채우기가 적은 한국 여성에겐 소화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으로 간주되었지만, 이번 시즌에 선보이는 무통 재킷은 조금 다르다. 블랙이나 브라운 외에도 화이트, 베이지 등 화려하고 밝은 컬러로 돌아온 것. 또 앞고개 부위까지 털이 풀린 모직 소재에 양털을 매한 재킷도 눈에 띈다. 여성스럽고 슬림한 디자인의 무통과 함께 몇 시즌 내내 오버사이즈의 아우터가 유행하면서 무통 역시 박사한 실루엣을 강조한 제품이 강세인데, 파워풀하고 매니시한 디자인이 여성스러운 록은 물론 오피스 룩에도 세련되게 매치되는 변전 매력도 갖췄다. 오버사이즈 무통을 입을 땀 슬림한 록과 함께 매치하거나 실크같이 정반대 소재와 매치하는 것이 스타일링에 재미를 더하는 방법. 여기에 무심하게 톡 걸쳐 입는 애프터드까지 갖출면 완벽하다. 무통의 투박한 느낌을 달아내고 싶다면 크롭드 디자인으로 경쾌하고 여성스럽게 연출하도록. 가벼운 언저나 얼룩이 묻었을 땀 브러시나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털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모피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천 소재의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에디터 **권유진**



생로랑

이크네

이크네

아이벨 마랑

무통가게 빈티지 에디션 2011

**INSIGHT**

편집부가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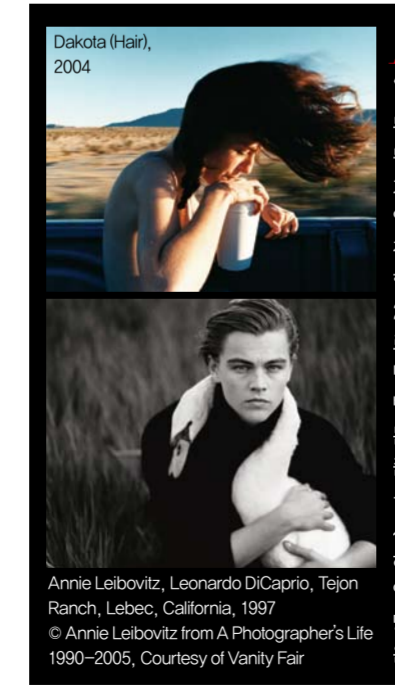
**Drink 새해를 장식하는 우아한 와인 의향**

위스키 디너, 샴페인 디너 등 술과 음식의 창의적인 궁합을 모색하는 각종 정찬 메뉴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역시 정성을 쏟은 민천에 가장 품격 있게 어울리는 건 와인일 것이다. 와인 애호가들의 새해맞이예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아한 와인 2종을 소개한다. 레드 와인으로는 최근 선보인 무통가게 빈티지 에디션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의 와인 명가인 비롱 필립 드 로찰드의 브랜드인 '무통가게'는 연간 1천7백만 병이 판매된다는 보르도 와인의 강자인데, 이 중 빈티지 에디션은 특히 매를로 품종의 비중을 높여 부드러움을 한층 살렸다고 한다. 최근 무통가게 빈티지 에디션 2011이 국내 시장에 선보였는데, 블랙 커런트, 체리 등 검붉은 과일 향에 스모키 향을 살짝 더한 매력적인 와인이다. 무통가게의 브랜드 매너를 받고 있는 윤영선 과정은 "무통가게 빈티지 에디션은 비롱 필립 드 로찰드의 전통 생산방식에 따라 만들었으며, 초창기 레이블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부단한 혁신의 전통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뉴질랜드 말버러 지역의 와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라우디 베이 쇼비농 블랑 2013이 눈에 띈다. 매년 새로운 빈티지가 나올 때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2012년과 달리 지난해는 날씨의 축복으로 인해 최상의 조건을 갖췄던 만큼 2013 빈티지 와인은 더욱 주목받을 수 밖에 없었다. 라임 껍질과 자몽, 복숭아 등 과일의 풍미가 배어 있는데다 미세알의 균형감도 탁월해 클라우디 베이 쇼비농 블랑 2013이 완성도 면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에디터 **고성연**



**Beauty COSMETICS IN STYLE**

패션 하우스의 뷰티 컬렉션 론칭이 놀라울 일인 아니지만 여전히 소비와 관심의 중심에서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 국내 론칭한 인생로랑 뷰티나 랑콤과 엘비바 조 칼레바리에이션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돌체앤가바 나와 톰 포드가 들어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니 말이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여자들의 화장대와 피우치를 즐겁게 해줄 새로운 패션 브랜드의 화장품이 줄줄이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그 첫 번째 주자는 튜닉과 라바 플랫으로 국내 시장에 흥란을 날린 토리 버치.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시그니처 오렌지 컬러와 메달 로고, 골드 글로이 포인트다. 향수 컬렉션이 중심이 되며 블러셔, 립스틱, 브러시, 보디라인까지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한다. 당장 다음 달이면 개별 박두 토리 버치에 이어 에스티 로더 그룹에서 론칭할 또 하나의 브랜드는 마이클 코어스다. 올 하반기에 론칭할 예정이지만 외국 잡지지에 이미 떠들썩하게 알려진 터라 국내에서도 벌써부터 반응이 상당하다. 다른 장식은 일절 없애고 금장만으로도 모던한 옷을 입힌 패카지에 상용군은 토리 버치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한편, 향수만 선보여온 플로에는 5년 만에 스킨케어 라인도 완성했다. 핑크빛 플라즈드 드레스를 입은 플로에 레이디를 연상시키는 보들과 아름다운 장미 향은 여름이 오기 전 만수무강한 것. 해외 파워 블로거와 SNS의 인증샷을 통해 유명세를 떨치는 발랑 헤어는 실크 퍼프와 이르간 모이스처라이저, 스프레이 등으로 발랑 우먼의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완성한다. 네덜란드에 있는 발랑 헤어 본사에서 에디터에게 올해 한국에서 론칭하고 싶다는 계획을 살짝 귀띔하기도 했다. 아직 국내 론칭 미정인 마크 제아콥스의 메이크업 제품은 세파를 통해 서서히 분위기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위시 리스트 1위는 마크의 아이코닉한 땀샘이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7컬러 색상의 아이샤드 펠레티 에디터 **이혜민**



**Exhibition <애니 레보비츠 사진전>, <라이언 맥긴리 - 청춘, 그 찬란한 기록>**

뉴욕이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뉴욕을 동경하도록 만든 걸출한 사진작가들의 작품전이 눈에 띈다. 관록의 가장 애니 레보비츠(Annie Leibovitz),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사진작가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의 전시회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014년 3월 4일까지 열리는 <애니 레보비츠 사진전>은 이미 해외에서 2백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은 걸출한 전시회다. 다큐멘터리와 패션 등 사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해온 레보비츠. 그녀는 미국지정 현에서 선정한 과거 40년간 가장 유명한 40명의 카버 사진 중 1위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사진과 2위인산의 데이 무어 사진을 거머쥔 만큼 당대 최고 유명 인사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번 사진전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작품을 아우른 전시이므로 이철에도 레논-요코 카버 사진은 볼 수 없지만, 멋진 공중 자세를 취한 러시아 모델 무궁수 마하일 바리시니코프, 백조를 목에 두른 채 안고 있는 젊은 리아나도 디캐프리오, 레보비츠가 누구보다 의욕하고 사랑했다는 '뉴욕의 자상' 수전 손해, 똑같은 옷차림의 모델들 사이에 숨은 '사진가 신디 셔먼'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서울 통의동에 자리 잡은 대림미술관에서 2014년 2월 23일까지 개최되는 <라이언 맥긴리 - 청춘, 그 찬란한 기록>에서는 젊음 자체만을 빛나는 황희의 순간을 진솔하게 포착한 영동적인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불안과 방황도 품고 있지만 자유, 열정, 순수 등 청춘의 소중한 순간들을 지배하는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누드 사진이 아름다운 해방감을 선사한다. 1977년생으로 25세에 최연소로 미국 워털루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사진계의 아이돌로 떠올랐던 맥킨리. 최근 방한했을 당시,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는 자신이 대가족의 막내로 태어나 자라면서 겪은 청춘의 방황과 유혹을 받고도 나쁜 목소리로 슬화하는 모한 매력의 소유자이다. 에디터 **고성연**



**GRAF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DISCOVER THE HAIR & JEWEL RECREATION AT WWW.GRAFFDIAMONDS.COM





퍼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산들라스 가려 미장 지행시 by 디리F&S.

폭신한 패딩을 갖춘 유니클한 여성 체용, 36x25cm, 토트백, 1백37만원대 프라다.

컬러감이 돋보이는 나일론 벨트 11만5천원 포크 by 바이커.

키무플라주 패딩이 감각적인 남성용 패딩 2백97만원 몽클레르.

도톰한 솜을 넣은 도트 패턴의 아이패드 케이스 11만원 몽클레르 by 10 코스 코모.

스웨덴 스키어 브랜드인 보링스조 8000원대 토즈.

대중적인 보온력을 자랑하는 여성 양털 부츠 20만원대 에그.

가죽 옷과 액세서리로 멋을 낸 앙증맞은 테디베어 키링 20만원대 프라다.

샤이빙스 양털형 아티디 쿠라진

가친 느낌을 살린 모직 클라치. 24x18cm, 73만원 크리스토퍼 케인 by 롤그레이 하운드.

따스한 양털 귀마개 10만원대 에그.

부드러운 가죽과 니트가 조화를 이룬 남성 장갑 98만원 브리오니.

톡톡 튀는 컬러가 돋보이는 키무플라주 백팩. 35x42cm, 1백53만원 지행시.

퍼플톤 장식이 사랑스러운 니트 넥 워머 49만원 제니퍼 베이 by 10 코스 코모.

몽클레르 02-514-0900  
 디리F&S 02-546-7764  
 바이커 02-543-1270  
 프라다 02-3218-5331  
 토즈 02-3438-8008  
 10 코스 코모 02-3018-1010  
 에그 02-3445-7712  
 롤그레이 하운드 02-6775-3696  
 지행시 02-517-7560  
 브리오니 02-540-4723  
 마르니 02-6905-3665

양털로 포인트를 준 패딩 여성 장미 3백97만원 마르니.

# Selection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니트와 머플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강추위다. 멋스러운 패딩부터 포근한 양털 부츠와 귀마개, 장갑, 넥 워머까지 스타일은 살리면서 따뜻한 배가되는 겨울철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paico.rabanne  
 The new fragrance for him  
 INVICTUS

www.pacorabanne.com

paico.rabanne INVICTUS The new fragrance for him INVICTUS





이번 시즌 패션 광고는 르네상스 초상화를 닮았다. 정렬하거나 난해해서 놀라움을 주는 대신, 우아하면서도 쉽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요소로 완미를 추구한다. 과장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진실하다. 본질적이지만 않은 것은 모두 생략하고, 순간이 아닌 영원불변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2013 F/W 패션 광고와 르네상스 초상화, 그 닮은꼴에 대한 이야기.

# Modern Renaissance Portrait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회복되더라도 호황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패션 산업계도 어렵지 마찬가지다. 그래서일까, 2013~14년 겨울 패션 광고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불변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오늘 구입한 상품이 아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보인다. 어렵고 힘들지만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뎌내고 소비자를 복돋는다. 이번 시즌 제작된 패션 광고는 과장되지 않고 편안해 보인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 에너지가 녹아 있다. 절제의 미덕이 묻어나면서도 약하지 않다. 클래식하다. 이번 시즌 패션 광고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 패션 광고, 고요함을 그리다

패션 광고는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 외에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시각예술의 한 장르이기도 하다. 패션 사진의 차이는 모델의 자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방식의 차이이기도 한데, 이번 시즌 광고 사진 속 모델의 태도는 정적이면서도 고요한 것이 특징이다. 코올롱 스포츠(Kolon Sports) 광고의 장동건과 텡웨이를 떠올려 보라. 활동성을 강조해온 아웃도어 브랜드가 움직임 가운데 순간을 잡아내는 대신, 언제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만 같은 영원을 표현한다. 장동건은 크게 외치는 대신 편안히 서서 읊조린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 있고 누구라도 편안하게 감싸주기예..." 텡웨이가 대답한다. "당신은 후독함을 이겨낼 용기와 뜨거운 기쁨을 가졌기에... 추울수록 당당하다"라고, 혹독한 추위는 경제적 상황을, 당당하면서도 편안한 태도는 혹독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결연한 자세를 대변하는 듯하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오늘날, 트렌드는 절제가 미덕이라고 말한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했던 과잉 소비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요한 삶 속에서 느낄 만한 건강한 미학을 제안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불확실한 현실을 대치할 만한 내면의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부연 설명은 잡다함이 되고, 정리된 간소한 생각 안에서 완벽함을 지향한다. 근원을 탐구하고 모더니티(modernity)와 전통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아름다웠던 시기를 재해석해 오늘의 역사를 새로 쌓으려고 한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예술에서 정신이 테크닉보다 강조되었던 시기, 르네상스. 이번 시즌 광고 속 모델의 표정과 자세에 르네상스의 미의식이 녹아 있는 이유이다.

## 르네상스 초상화, 본질을 논하다

아놀드 하우스(Arnold Hauser)와 하인리히 뵐플린(Heinrich Wölfflin)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미술을 번역한 안인화는플 "르네상스 미술은 현실을 단순화해 명료하다. 이성적이고, 건강한 자연주의를 지향해 회화 속 인물들이 안정적이고 진지하다. 힘과 에너지와 위엄을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견고하며, 우아하다. 또 비형이상학적이다. 클래식하다거나 고전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진중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넉넉한 동시에 명료하다. 소녀가 아닌 성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주변과의 조화까지 배려하는 아름다움의 단계이다. 고전 미술이 감동을 주는 것은 표현의 아름다움이 내용과 내면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괴테(Johan Wolfgang von Goethe) 역시 "르네상스 미술은 온화하고 고귀하다. 내면의 확고함이 있으며 자연스러우면서도 균형미가 있다. 또 인간의 본질과 현실의 삶에 대한 예술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칭송했다. 르네상스 회화의 핵심은 본질적이지만 않은 것은 모두 생략하는 데 있다. 생략의 미학은 모던함의 미학과 맞물려 있다. 르네상스 초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확실한 시대에 가능한 한 단순하게 완벽함을 추구할 수 있는 비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메디치(Medici) 가문을 알 것이다. 메디치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탄생한 르네상스 시대의 대부호이자 권력가이며 예술가들의 후원자였다. 르네상스 클래식의 탄생 배경에는 메디치가와 같은 부호들의 귀족화된 미의식이 깔려 있다. 아놀드 하우스(Arnold Hauser)는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화된 미의식 덕분에 그 결과물이 화려함보다 간결함을 추구하며 요란스럽지 않다"라고 설명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움이란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아름다움의 결합을 뜻한다. 다재다능하고, 교양 있고, 지적이면서도 품위 있고(그러나 너무 무겁지는 않아야 한다), 동시에 여유와 마음의 평정을 지녀 태연자약하며, 허식과 과장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이라 칭했다. 반면, 과격하게 움직이거나 과장되고 자기현시적인 우아함은 오히려 고상하지 못하다고 치부되었다. 르네상스 시대는 이미 패션에 대한 책이 쓰인 시기이기도 하지만,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의 회화론,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회화론이 쓰인 시기이기도 하다. 르네상스 시대 아름다운 예술의 존재 의미는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과 표현되는 '사람'의 정신, 그 내면의 본질까지 중요시한다는 철학에 있다.

사진: 에린 오라비(Erwin Oehl), 윌름 쥘리아(Suzanne Jongmans) / 르네상스 초상화

## 패션 광고, 르네상스 초상화를 닮다

"과거의 초상화는 사진으로 대체되었으며, 오늘날 패션모델의 이상적인 자세와 구성은 전통적인 회화 거장들의 작품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앤 홀랜더(Anne Hollander)의 표현은 이번 시즌 패션 광고 사진 트렌드와 딱 들어맞는다. 발렌티노(Valentino)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2013 F/W 시즌 광고는 르네상스 초상화 속 여인이 현대의 옷을 입고 행한 듯 보인다. 알렉산더 맥퀸의 광고는 복식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의상을 입은 모델을 곳곳한 자세로 세워 촬영했다. 고요하고 정적이지만 주먹을 쥔 모델의 자세에서 여전사의 결연함까지 느껴진다. 반면, 발렌티노의 광고는 사진임에도 회화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검은색 배경 앞에 선 모델은 르네상스 회화 속 여인처럼 과장되지 않은 정숙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은유적인 우아한 손동작을 통해 시선의 흐름을 조절한다. 또 르네상스 정물화적 표현을 혼용해, 하이힐이나 핸드백을 예술 작품처럼 보여준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 명암 대조 기법을 사용한 르네상스 회화처럼 모델의 신체 일부가 검은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오리를 들고 있는 랑방(Lanvin)의 광고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백조를 모사한 르네상스 회화 메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 밖에 파란색 상자를 강조해온 티파니(Tiffany) 역시 지난 가을에는 우아한 한 편의 클래식한 초상화와 같은 광고를 선보였다. 샤넬(Chanel)과 랑방의 이번 리조트 컬렉션 광고 또한 클래식한 초상화를 연상시킨다. 넬리 로디 트렌드랩(Nelly Rodi Trendlab), 까린(Carlin, 국내 사무국 지엘아이 컨설팅) 등과 같은 트렌드 정보업체는 트렌드와 관련해 2013~14 F/W 시즌 주목해야 할 사진작가로 슈자너 요흐만스(Suzanne Jongmans, www.galeriewilms.nl), 헨드릭 케르슈텐스(Hendrik Kerstens), 에르빈 올라프(Erwin Olaf), 줄리아 헤타(Julia Hetta) 등을 소개했다. 모두 르네상스의 미학을 현대회화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로, 에르빈 올라프와 줄리아 헤타는 상업적인 패션 광고 사진과 잡지 에디토리얼 사진 작업도 겸하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16~17세기 유럽의 한스 홀베인(Hans Holbein), 장 클루에(Jean Clouet),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 로히어르 판데르 베이덴(Rogier van der Weyden) 등과 같은 거장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독일 작가 헨드릭 케르슈텐스는 딸을 모델로 사진 작업을 하는데, 모델의 자세와 소품, 빛의 효과가 르네상스 거장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네덜란드 작가 슈자너 요흐만스 역시 상품 포장재를 사용해 르네상

스 초상화를 위트 있게 재현한다. 그의 작품 속에서 르네상스는 문화적 가치를 상징하며, 작품 속 포장재는 현대의 물질주의와 소비 풍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상징한다. 한편 슈자너 요흐만스는 정적이면서도 고요한 인물 표현과 관련해 "평온함은 작품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삶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한다. 줄리아 헤타는 이번 시즌 질 샌더 네이비(Jil Sander Navy)와 올라 카일리(Orla Kiely)의 광고 사진 제작에 참여했다.

## 열면 초상화가 의미하는 것

이번 시즌 광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옆모습을 담은 초상이다. 갭(GAP), 질 샌더(Jil Sander), 디올(Dior), 타임(Time), 보테가 베네티(Bottega Veneta) 등 여러 브랜드가 옆모습의 광고 사진을 제작했다. 옆모습 초상은 로마 시대 황제의 모습을 새겨 넣은 동전 디자인이 모테로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한 초상화 양식이다. 옆면이라는 특성상 사진 속 모델은 보는 주체가 아닌 보이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이은기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보이는 대상은 보통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관찰, 기념, 숭배하게 하고 중국엔 하나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르네상스 옆면 초상화는 신중함, 깨끗함, 절제, 결연함, 명예, 정숙함, 올바름을 상징하기 위한 표현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옆면 초상화에서 모델의 얼굴 표정은 잘 드러나지 않고, 착용한 액세서리나 의상의 실루엣이 더욱 부각된다. 질 샌더가 지적인 브랜드라고 느껴지는 것이나, 디올 광고 속 핸드백이 다른 광고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장치가 계 몫을 하기 때문이다.

## 패션 광고, 인문주의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르네상스 시대를 인문주의(humanism) 시대라고 한다. 정신을 가꾸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오늘날, 기업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에 대해 알기 위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진다. 발전 동력을 찾고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 방안으로 기술의 융합을 고민하던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 새삼스레 관심을 갖는 연구도 여기에 있다. 패션은 이미 예술 장르로 편입된 지 오래다.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물건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갖고, 외양이 창조되기까지의 정신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패션이 본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패션 광고에 철학을 입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스타일** 글: 곽영림(패션 칼럼니스트)



# New prime zone



1 루비 108.10캐럿, 다이아몬드 69.40캐럿을 세팅한 그라프 오프티메프 다이아몬드&루비 네크리스, 각 51.53캐럿, 50.67캐럿에 달하는 스왑컷츠 다이아몬드 아이링은 모두 그라프 주얼리 컬렉션. 2 왼쪽의 스키페넨 워치는 파넬라이 루비노르 1950 투르비옹 GMT 세라미카, 오른쪽의 레드 골드 워치는 파넬라이 라디오미르 1940 크로노 모노필산테 메이츠 GMT 오토 로스. 3 유니크한 디자인의 리처드 밀 RM 007워치. 4 라벨라의 2014년 S/S 헤르티지 워치에 컬렉션. 5 로저 비비에의 광고 비주얼. 6 화려한 여성화를 담은 로저 드비에의 벨벳 워치 컬렉션.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이엔드 브랜드 시장은 날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 유니크하게 발전하는 취향과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대중의 변화에 따라 해외에서만 볼 수 있던 명품 브랜드를 올해는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는 시계 브랜드부터 최고의 럭셔리 소재만 사용하는 핸드메이드 라제리 브랜드까지, 드디어 서울에 상륙한 최고의 브랜드를 소개한다.

**Graff** 많은 사람들이 자체 그라프가 국내에 론칭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들어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칼리타 높은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는 주얼리 컬렉터를 사에서는 이미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최상성, 아름다움, 탁월함,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 그라프는 채굴과 폴리싱은 물론 핸드메이드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주얼리 메이킹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런던에 위치한 본사는 물론 중국과 한국에 이르러까지 전 세계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자 로렌스 그라프 회장은 하이 주얼리의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성과 혁신의 기준을 마련해 유니크 그 자체인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지난해 호텔 신라 아카데미에 오픈한 그라프 부티크는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문의 02-2256-6810

**Officine Panerai** 이탈리아 브랜드로서 독특한 디자인과 아이덴티티로 세계적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파넬라이. 1916년 이탈리아 해군의 워치 공급업체였던 파넬라이는 리듬을 바탕으로 아방 다이얼을 위한 물질인 라디오미르(Radiomir)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1938년에는 크라운을 보호하기 위해 나사와 함께 장착하는 특수한 레버 브리지 장치를 고안해 시계 역사상 처음으로 수중 200m에서 사용 가능한 방수 시계를 선보였는데, 이 독특한 디자인은 현재까지 파넬라이를 대표하는 시그처 디자인으로 많은 마니아층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자사 무브먼트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보다 완성도 높은 워치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49-5922

**Richard Mille** 지난 2013년 12월 5일 호텔 신라 아카데미에 첫 번째 부티크를 오픈한 리처드 밀. 2001년 설립해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 독자적이고 획기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을 선보여 시계업계에 화제인, 특별한 브랜드다. 브랜드 설립 당시부터 첨단 신소재로 시계 제작에 적용한 최고의 기술 혁신, 예술성과 아키텍처, 수작업 피니싱 등 세 가지 콘셉트가 리처드 밀의 근원이다. 브랜드 창립자인 리처드 밀은 "어떠한 기술적 타협도 허락하지 않고, 상상이나 전략으로 포장하지 않은, 그 자체로 최고의 시계를 만들겠다"라는 야망을 했을 정도로 혁신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티타늄, 카본 나노 섬유, 알루미늄-리튬 같은 항공과 레이싱 카 산업의 첨단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리처드 밀은 열정적인 시계 수집가와 최첨단 소재, 기술을 사랑하는 시계 마니아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하이엔드 시계와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새로운 타임피스 시장을 열 예정이다. 문의 02-2230-1288

**Roger Dubuis** 18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디자인과 독특한 시계를 선보이며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저 드비에. 모든 제품이 체내바 실 인증을 받을 만큼 완성도가 뛰어난 수공예 워치로, 정교하게 고안한 그래픽적인 스키페넨 워치가 브랜드의 상징이다. 워치메이커 로저 드비에가 시작해 리치몬드 그룹에서 전개하는 브랜드로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투명한 케이스백, 오버사이즈 크라운, 로만 인덱스, 트리플 러그, 켈트 십자가 새겨진 투르비옹 케이스를 시황에 대응하게 완성한다. 무장한 전사의 이미지를 담은 엑스칼리버와 카지노에서 영감을 받은 라모네가스크, 크리스탈 케이스가 배열을 덮고 있는 펄싱, 그래픽적인 디자인의 여성 워치 벨벳까지 네 가지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2-3440-5670

**La Perla** 귀네스 펠트르가 영화 속에서 착용한 화려한 라제리, 세계적인 모델 히다디 클룸이 헬라인 피터를 위해 준비한 레이스 장식 슬림이 바로 라벨라 제품이다. 줄리아 로버츠, 빅토리아 베컴, 샤론 스톤까지,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해외에서는 꿈의 라제리, 결혼을 위한 최고급 라제리로 이미 인정받은 라벨라가 지난 2013년 7월 서울 정충동 호텔 신라 아카데미에 매장을 낸 데 이어 8월에는 도산공원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하이엔드 라제리 브랜드 라벨라의 창립자인 아다 마조티(Ada Masotti)가 첫선을 보인 이후로 지금까지 3대째를 이어오며 모든 제품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직접 제작하는 진정한 Made in Italy다. 해마다 패션 컬렉션에 준하는 다양한 테마의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여성 라제리라는 물론 남성 컬렉션, 수영복, 드레스, 브라이들 컬렉션, 스타킹까지 다양한 라인을 갖추고 있다. 문의 02-2231-4994

**Roger Vivier** 건축적인 디자인, 시차스럽고도 호화로운 장식을 한껏 사용한 예술 구두의 장인 로저 비비에. 뾰족한 구두를 의미하는 스텔레토 힐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것이 로저 비비에의 구두였고, 1960년대 실크를 사용해 허벅지 윗까지 올라오는 시하이(high-high) 부츠의 원형을 만들었을 정도로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브리짓 바르도, 비틀스가 로저 비비에의 고객였고, 1983년 엘바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위해 신발을 디자인한 것도 그였다. 1953년부터 1963년까지 크리스찬 디올의 슈즈 컬렉션을 디자인했으며 이후에는 입생로랑, 엠마누엘 용기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역사적인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1998년 작고하기까지 그가 디자인한 슈즈들은 지금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지금까지 편집 매장에서 소수의 디자인만 접해왔다면 투즈 그룹을 통해 론칭할 6월에는 새로운 슈즈의 신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듯. www.rogervivier.com 에디터 배미진



##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을 때 간다



### 어떤 길이라도 달릴 수 있다는 믿음 Touareg 4MOTION<sup>®</sup>

당신의 차가 투아렉 4MOTION이라면 겨울이 긴 대한민국에서 눈길 운전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상시 사륜구동 기술 4MOTION은 외부환경에 따라 4개의 휠에 최적화된 승차감을 구현하는 사륜구동의 아노베이션입니다. 또한 Dakar Rally 3년 연속 우승을 통해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럭셔리 대형SUV로 다시 한번 인정받은 명차. 도로의 상태나 차의 움직임에 따라 구동력의 배분이 변하는 할덱스 방식과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당신이 있는 그곳이 어떤 길이라도 혹은 어떤 날씨일지라도 투아렉은 경계를 넘어 달려 나가는 프리미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한한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진화된 기술력.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투아렉 4MOTION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길이라도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 폭스바겐 4MOTION<sup>®</sup>

### Make Everyday an Adventure



Volkswagen. Das Auto.

[한시량] [제작] 02-864-8900 서울 02-689-3421 부산 02-787-6300 인천 02-516-0000 대구 02-312-0040 광주 02-898-0800 강원 02-380-9999 아산 02-320-9600 역삼 02-593-6733 경북 02-320-9630 전북 031-760-1800 울산 031-904-4400 수원 031-294-8000 안양 032-471-6100 안성 031-308-0801 부산 051-811-2530 대구 053-787-1900 대전 042-862-9944 광주 062-361-9500 청주 043-223-9944 창원 055-246-7788 원주 063-213-9500 전주 053-737-0800 평택 031-373-7999 목포 061-344-3000 [차량 및 교통 관련] Touareg V6 TDI BlueMotion (7인승) 연료소비량: 제1상 20.67/제2상 18.5/제3상 20.67/제4상 20.67/제5상 20.67/제6상 20.67/제7상 20.67/제8상 20.67/제9상 20.67/제10상 20.67/제11상 20.67/제12상 20.67/제13상 20.67/제14상 20.67/제15상 20.67/제16상 20.67/제17상 20.67/제18상 20.67/제19상 20.67/제20상 20.67/제21상 20.67/제22상 20.67/제23상 20.67/제24상 20.67/제25상 20.67/제26상 20.67/제27상 20.67/제28상 20.67/제29상 20.67/제30상 20.67/제31상 20.67/제32상 20.67/제33상 20.67/제34상 20.67/제35상 20.67/제36상 20.67/제37상 20.67/제38상 20.67/제39상 20.67/제40상 20.67/제41상 20.67/제42상 20.67/제43상 20.67/제44상 20.67/제45상 20.67/제46상 20.67/제47상 20.67/제48상 20.67/제49상 20.67/제50상 20.67/제51상 20.67/제52상 20.67/제53상 20.67/제54상 20.67/제55상 20.67/제56상 20.67/제57상 20.67/제58상 20.67/제59상 20.67/제60상 20.67/제61상 20.67/제62상 20.67/제63상 20.67/제64상 20.67/제65상 20.67/제66상 20.67/제67상 20.67/제68상 20.67/제69상 20.67/제70상 20.67/제71상 20.67/제72상 20.67/제73상 20.67/제74상 20.67/제75상 20.67/제76상 20.67/제77상 20.67/제78상 20.67/제79상 20.67/제80상 20.67/제81상 20.67/제82상 20.67/제83상 20.67/제84상 20.67/제85상 20.67/제86상 20.67/제87상 20.67/제88상 20.67/제89상 20.67/제90상 20.67/제91상 20.67/제92상 20.67/제93상 20.67/제94상 20.67/제95상 20.67/제96상 20.67/제97상 20.67/제98상 20.67/제99상 20.67/제100상 20.67/제101상 20.67/제102상 20.67/제103상 20.67/제104상 20.67/제105상 20.67/제106상 20.67/제107상 20.67/제108상 20.67/제109상 20.67/제110상 20.67/제111상 20.67/제112상 20.67/제113상 20.67/제114상 20.67/제115상 20.67/제116상 20.67/제117상 20.67/제118상 20.67/제119상 20.67/제120상 20.67/제121상 20.67/제122상 20.67/제123상 20.67/제124상 20.67/제125상 20.67/제126상 20.67/제127상 20.67/제128상 20.67/제129상 20.67/제130상 20.67/제131상 20.67/제132상 20.67/제133상 20.67/제134상 20.67/제135상 20.67/제136상 20.67/제137상 20.67/제138상 20.67/제139상 20.67/제140상 20.67/제141상 20.67/제142상 20.67/제143상 20.67/제144상 20.67/제145상 20.67/제146상 20.67/제147상 20.67/제148상 20.67/제149상 20.67/제150상 20.67/제151상 20.67/제152상 20.67/제153상 20.67/제154상 20.67/제155상 20.67/제156상 20.67/제157상 20.67/제158상 20.67/제159상 20.67/제160상 20.67/제161상 20.67/제162상 20.67/제163상 20.67/제164상 20.67/제165상 20.67/제166상 20.67/제167상 20.67/제168상 20.67/제169상 20.67/제170상 20.67/제171상 20.67/제172상 20.67/제173상 20.67/제174상 20.67/제175상 20.67/제176상 20.67/제177상 20.67/제178상 20.67/제179상 20.67/제180상 20.67/제181상 20.67/제182상 20.67/제183상 20.67/제184상 20.67/제185상 20.67/제186상 20.67/제187상 20.67/제188상 20.67/제189상 20.67/제190상 20.67/제191상 20.67/제192상 20.67/제193상 20.67/제194상 20.67/제195상 20.67/제196상 20.67/제197상 20.67/제198상 20.67/제199상 20.67/제200상 20.67/제201상 20.67/제202상 20.67/제203상 20.67/제204상 20.67/제205상 20.67/제206상 20.67/제207상 20.67/제208상 20.67/제209상 20.67/제210상 20.67/제211상 20.67/제212상 20.67/제213상 20.67/제214상 20.67/제215상 20.67/제216상 20.67/제217상 20.67/제218상 20.67/제219상 20.67/제220상 20.67/제221상 20.67/제222상 20.67/제223상 20.67/제224상 20.67/제225상 20.67/제226상 20.67/제227상 20.67/제228상 20.67/제229상 20.67/제230상 20.67/제231상 20.67/제232상 20.67/제233상 20.67/제234상 20.67/제235상 20.67/제236상 20.67/제237상 20.67/제238상 20.67/제239상 20.67/제240상 20.67/제241상 20.67/제242상 20.67/제243상 20.67/제244상 20.67/제245상 20.67/제246상 20.67/제247상 20.67/제248상 20.67/제249상 20.67/제250상 20.67/제251상 20.67/제252상 20.67/제253상 20.67/제254상 20.67/제255상 20.67/제256상 20.67/제257상 20.67/제258상 20.67/제259상 20.67/제260상 20.67/제261상 20.67/제262상 20.67/제263상 20.67/제264상 20.67/제265상 20.67/제266상 20.67/제267상 20.67/제268상 20.67/제269상 20.67/제270상 20.67/제271상 20.67/제272상 20.67/제273상 20.67/제274상 20.67/제275상 20.67/제276상 20.67/제277상 20.67/제278상 20.67/제279상 20.67/제280상 20.67/제281상 20.67/제282상 20.67/제283상 20.67/제284상 20.67/제285상 20.67/제286상 20.67/제287상 20.67/제288상 20.67/제289상 20.67/제290상 20.67/제291상 20.67/제292상 20.67/제293상 20.67/제294상 20.67/제295상 20.67/제296상 20.67/제297상 20.67/제298상 20.67/제299상 20.67/제300상 20.67/제301상 20.67/제302상 20.67/제303상 20.67/제304상 20.67/제305상 20.67/제306상 20.67/제307상 20.67/제308상 20.67/제309상 20.67/제310상 20.67/제311상 20.67/제312상 20.67/제313상 20.67/제314상 20.67/제315상 20.67/제316상 20.67/제317상 20.67/제318상 20.67/제319상 20.67/제320상 20.67/제321상 20.67/제322상 20.67/제323상 20.67/제324상 20.67/제325상 20.67/제326상 20.67/제327상 20.67/제328상 20.67/제329상 20.67/제330상 20.67/제331상 20.67/제332상 20.67/제333상 20.67/제334상 20.67/제335상 20.67/제336상 20.67/제337상 20.67/제338상 20.67/제339상 20.67/제340상 20.67/제341상 20.67/제342상 20.67/제343상 20.67/제344상 20.67/제345상 20.67/제346상 20.67/제347상 20.67/제348상 20.67/제349상 20.67/제350상 20.67/제351상 20.67/제352상 20.67/제353상 20.67/제354상 20.67/제355상 20.67/제356상 20.67/제357상 20.67/제358상 20.67/제359상 20.67/제360상 20.67/제361상 20.67/제362상 20.67/제363상 20.67/제364상 20.67/제365상 20.67/제366상 20.67/제367상 20.67/제368상 20.67/제369상 20.67/제370상 20.67/제371상 20.67/제372상 20.67/제373상 20.67/제374상 20.67/제375상 20.67/제376상 20.67/제377상 20.67/제378상 20.67/제379상 20.67/제380상 20.67/제381상 20.67/제382상 20.67/제383상 20.67/제384상 20.67/제385상 20.67/제386상 20.67/제387상 20.67/제388상 20.67/제389상 20.67/제390상 20.67/제391상 20.67/제392상 20.67/제393상 20.67/제394상 20.67/제395상 20.67/제396상 20.67/제397상 20.67/제398상 20.67/제399상 20.67/제400상 20.67/제401상 20.67/제402상 20.67/제403상 20.67/제404상 20.67/제405상 20.67/제406상 20.67/제407상 20.67/제408상 20.67/제409상 20.67/제410상 20.67/제411상 20.67/제412상 20.67/제413상 20.67/제414상 20.67/제415상 20.67/제416상 20.67/제417상 20.67/제418상 20.67/제419상 20.67/제420상 20.67/제421상 20.67/제422상 20.67/제423상 20.67/제424상 20.67/제425상 20.67/제426상 20.67/제427상 20.67/제428상 20.67/제429상 20.67/제430상 20.67/제431상 20.67/제432상 20.67/제433상 20.67/제434상 20.67/제435상 20.67/제436상 20.67/제437상 20.67/제438상 20.67/제439상 20.67/제440상 20.67/제441상 20.67/제442상 20.67/제443상 20.67/제444상 20.67/제445상 20.67/제446상 20.67/제447상 20.67/제448상 20.67/제449상 20.67/제450상 20.67/제451상 20.67/제452상 20.67/제453상 20.67/제454상 20.67/제455상 20.67/제456상 20.67/제457상 20.67/제458상 20.67/제459상 20.67/제460상 20.67/제461상 20.67/제462상 20.67/제463상 20.67/제464상 20.67/제465상 20.67/제466상 20.67/제467상 20.67/제468상 20.67/제469상 20.67/제470상 20.67/제471상 20.67/제472상 20.67/제473상 20.67/제474상 20.67/제475상 20.67/제476상 20.67/제477상 20.67/제478상 20.67/제479상 20.67/제480상 20.67/제481상 20.67/제482상 20.67/제483상 20.67/제484상 20.67/제485상 20.67/제486상 20.67/제487상 20.67/제488상 20.67/제489상 20.67/제490상 20.67/제491상 20.67/제492상 20.67/제493상 20.67/제494상 20.67/제495상 20.67/제496상 20.67/제497상 20.67/제498상 20.67/제499상 20.67/제500상 20.67/제501상 20.67/제502상 20.67/제503상 20.67/제504상 20.67/제505상 20.67/제506상 20.67/제507상 20.67/제508상 20.67/제509상 20.67/제510상 20.67/제511상 20.67/제512상 20.67/제513상 20.67/제514상 20.67/제515상 20.67/제516상 20.67/제517상 20.67/제518상 20.67/제519상 20.67/제520상 20.67/제521상 20.67/제522상 20.67/제523상 20.67/제524상 20.67/제525상 20.67/제526상 20.67/제527상 20.67/제528상 20.67/제529상 20.67/제530상 20.67/제531상 20.67/제532상 20.67/제533상 20.67/제534상 20.67/제535상 20.67/제536상 20.67/제537상 20.67/제538상 20.67/제539상 20.67/제540상 20.67/제541상 20.67/제542상 20.67/제543상 20.67/제544상 20.67/제545상 20.67/제546상 20.67/제547상 20.67/제548상 20.67/제549상 20.67/제550상 20.67/제551상 20.67/제552상 20.67/제553상 20.67/제554상 20.67/제555상 20.67/제556상 20.67/제557상 20.67/제558상 20.67/제559상 20.67/제560상 20.67/제561상 20.67/제562상 20.67/제563상 20.67/제564상 20.67/제565상 20.67/제566상 20.67/제567상 20.67/제568상 20.67/제569상 20.67/제570상 20.67/제571상 20.67/제572상 20.67/제573상 20.67/제574상 20.67/제575상 20.67/제576상 20.67/제577상 20.67/제578상 20.67/제579상 20.67/제580상 20.67/제581상 20.67/제582상 20.67/제583상 20.67/제584상 20.67/제585상 20.67/제586상 20.67/제587상 20.67/제588상 20.67/제589상 20.67/제590상 20.67/제591상 20.67/제592상 20.67/제593상 20.67/제594상 20.67/제595상 20.67/제596상 20.67/제597상 20.67/제598상 20.67/제599상 20.67/제600상 20.67/제601상 20.67/제602상 20.67/제603상 20.67/제604상 20.67/제605상 20.67/제606상 20.67/제607상 20.67/제608상 20.67/제609상 20.67/제610상 20.67/제611상 20.67/제612상 20.67/제613상 20.67/제614상 20.67/제615상 20.67/제616상 20.67/제617상 20.67/제618상 20.67/제619상 20.67/제620상 20.67/제621상 20.67/제622상 20.67/제623상 20.67/제624상 20.67/제625상 20.67/제626상 20.67/제627상 20.67/제628상 20.67/제629상 20.67/제630상 20.67/제631상 20.67/제632상 20.67/제633상 20.67/제634상 20.67/제635상 20.67/제636상 20.67/제637상 20.67/제638상 20.67/제639상 20.67/제640상 20.67/제641상 20.67/제642상 20.67/제643상 20.67/제644상 20.67/제645상 20.67/제646상 20.67/제647상 20.67/제648상 20.67/제649상 20.67/제650상 20.67/제651상 20.67/제652상 20.67/제653상 20.67/제654상 20.67/제655상 20.67/제656상 20.67/제657상 20.67/제658상 20.67/제659상 20.67/제660상 20.67/제661상 20.67/제662상 20.67/제663상 20.67/제664상 20.67/제665상 20.67/제666상 20.67/제667상 20.67/제668상 20.67/제669상 20.67/제670상 20.67/제671상 20.67/제672상 20.67/제673상 20.67/제674상 20.67/제675상 20.67/제676상 20.67/제677상 20.67/제678상 20.67/제679상 20.67/제680상 20.67/제681상 20.67/제682상 20.67/제683상 20.67/제684상 20.67/제685상 20.67/제686상 20.67/제687상 20.67/제688상 20.67/제689상 20.67/제690상 20.67/제691상 20.67/제692상 20.67/제693상 20.67/제694상 20.67/제695상 20.67/제696상 20.67/제697상 20.67/제698상 20.67/제699상 20.67/제700상 20.67/제701상 20.67/제702상 20.67/제703상 20.67/제704상 20.67/제705상 20.67/제706상 20.67/제707상 20.67/제708상 20.67/제709상 20.67/제710상 20.67/제711상 20.67/제712상 20.67/제713상 20.67/제714상 20.67/제715상 20.67/제716상 20.67/제717상 20.67/제718상 20.67/제719상 20.67/제720상 20.67/제721상 20.67/제722상 20.67/제723상 20.67/제724상 20.67/제725상 20.67/제726상 20.67/제727상 20.67/제728상 20.67/제729상 20.67/제730상 20.67/제731상 20.67/제732상 20.67/제733상 20.67/제734상 20.67/제735상 20.67/제736상 20.67/제737상 20.67/제738상 20.67/제739상 20.67/제740상 20.67/제741상 20.67/제742상 20.67/제743상 20.67/제744상 20.67/제745상 20.67/제746상 20.6



# best new Coats

패딩, 무릎, 모피, 가죽 등 경쟁한 경쟁 상대를 제치고 겨울 아우터의 꽃으로 꼽히는 코트. 길어진 추위 속에서 스타일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올겨울 베스트 코트를 사수하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 Trend 1. Hottest Duffel

하창 시절 교복처럼 통용되던 진부한 스타일 때문에 한동안 외면받던 더플코트의 화려한 부활! 케이블 TV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인기를 예견이라도 한 듯 추억의 패션 아이템인 일명 '뽕뽕이 코트'가 명민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손길을 거쳐 하이 패션에 이름을 올렸다. 더플코트의 유행을 이끈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에디 슬리먼. 기본에 가장 충실한 디자인임에도 베이비 돌 원피스에 망사 스타킹, 투박한 워커 부츠와 믹스한 그의 탁월한 스타일링 감각 덕분에 이토록 뜨거운 패션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후드와 라펠을 생략하고 가죽 요크와 타이탄 실루엣으로 패셔너블한 더플코트를 완성한 지방시, 케이프를 연상시키는 A자 실루엣의 크림색 더플코트로 아메리칸 클래식을 보여준 랄프 로렌, 큼지막한 스트라이프 패턴과 프린트를 입힌 3.1 필립 림도 더플코트의 유행에 견인자 역할을 했다. 오피스 우먼이라면 미니멀한 캐멀 컬러의 더플코트에 누드 톤 펌프스를 매치한 데렉 램의 스타일링이 유용할 듯.

## Trend 2. Soft Pastel

어둡고 진한 무채색 일색인 겨울철 옷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이번 시즌이 적기다. 크림, 스카이 블루, 라벤더, 레몬 등 마카롱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파스텔컬러 코트가 쇼윈도를 장식했으니. 올겨울엔 유행에 민감한 쿿데 높은 여자들의 위시 리스트까지 공략할 만큼 지극히 세련된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특히 오버사이즈 실루엣일 경우 세련된 느낌이 배가되는데, 목욕 가운을 걸친 듯 커다란 하늘색 모헤어 코트와 라펠이 넓은 핑크색 코트를 대거 선보인 까르맹이 좋은 예가 되겠다. 이너 웨어는 셀린이나 로사스, 아크네에서 선보인 것처럼 회색, 검정 등 모노톤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올겨울엔 코트와 같은 컬러로 톤온톤 매치하는 것이 가장 세련된 방법.

## Trend 3. Oversize Me

지난 시즌을 휩쓴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몸에 잘 맞는 테일러드 코트를 갖고 있다면 큼지막한 아우터 하나쯤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것. 오버사이즈 코트가 시즌을 거듭할수록 사랑받는 이유는 스타일링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기 때문. 어떤 이너 웨어를 선택하더라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한몫한다. 어깨선이 한 뼘 이상 내려온 부드러운 라인에 진동돌레가 넉넉하고, 라펠이 큼지막하며 둥그스름한 코론 디자인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텔라 매카트니는 코트보다 긴 원피스에 투박한 플랫폼 슈즈를 매치해 더욱 길고 풍성한 실루엣을 완성했고, 프로엔자 슐라는 슬림한 팬츠 스커트와 함께 형태의 미학을 강조했으며, 막스마라와 지암바티스타 발리는 재킷과 코트, 코트와 코트를 겹쳐 입는 다양한 레이어드 방식을 제안했다.

## Trend 4. Maxi Boom

발목이 겨우 드러나는 맥시 길이 역시 코트 마니아의 지갑을 열게 할 매력적인 트렌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로테



뽕뽕한 모직 소재 더플 코트 3백만원대 생로랑.



코론 형태의 오버사이즈 코트 3백만원대 마르니.



넉넉한 아웃핏을 연출하는 스트라이프 코트 4백만원대 스텔라 매카트니.



무단에 성세한 크로세를 덧댄 파스텔컬러 코트 4백만원대 칼로에.



블랙과 화이트의 모던한 조합과 페미닌 실루엣이 특징인 코트 8백만원대 다음.

장착용 '투구'를 매칭



케이프 형식의 레드 코트 3백만원대 구찌.



맥시 길이의 클래식한 더블브레스트 코트 5백45만원 셀린.



물결치는 무단과 입체적인 패턴이 돋보이는 코트 2백만원대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이퍼드 패턴을 입은 모피를 덧댄 트렌치코트 1천 7백만원대 버버리 프로섬.



이번 시즌을 강타한 체크 프린트와 소매 디테일이 특징인 코트 2백90만원대 프라다.

스크한 무드로 요지 아마모토나 존야 와타나베 등 몇몇 디자이너에게만 환영받던 맥시 코트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된 것이다. 기본에 충실한 테일러드 코트에 진주 모티브 단추로 극도로 클래식하게 완성하거나(셀린), 시퀸과 깃털 장식으로 1천만원대를 호가하는 쿼터급 디자이너거나(루이 비통), 틱 끝까지 네크라인을 끌어올린 트위드 코트로 미래적인 무드를 연출하거나(샤넬), 바닥에 깔릴 듯한 블랙 코트(에트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듯. 맥시 길이의 코트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넉넉한 팬츠와 함께 부피감을 극대화할 것.

## Trend 5. Sweet Cape

매 시즌 런웨이의 양념처럼 등장하는 케이프가 이번 시즌 눈에 띄는 때는 팔로에의 영향이 컸다. 메인 룩으로 선보인 케이프 형태의 그레이 코트는 프레스는 물론 바이어의 환호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으니까. 이후 등장한 블루 컬러의 울 케이프 코트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어울릴 법한 걸리시한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마냥 소녀스럽게만 보이고 싶지 않다면 과감한 패턴이 들어간 케이프와 가죽 스커트, 레이스업 부츠로 티프한 터치를 기미한 블루마린의 룩이나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와 메탈릭한 톱, 파이톤 부츠를 믹스한 관능적인 구찌 룩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 Trend 6. Fit-N-Flare

이번 시즌 메가 트렌드를 이끄는 레이디라이크 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페미닌 실루엣의 코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벨트로 허리를 잘록하게 조여 X자 실루엣을 만들고, 밑단이 물결치는 디자인이라면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채로운 체크 패턴을 입은 도톰한 트위드와 울 혼방 코트를 선보인 프라다, 뉴룩을 연상시키는 아워글래스 형태의 구조적인 코트를 선보인 다음, 플레이스커트처럼 밑단이 아름답게 퍼지는 입체적인 패턴의 비비안 웨스트우드, 광택이 도는 레드 코트를 선보인 톨체앤가바나를 눈여겨볼 것. 미묘한 실루엣으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칼 같은 재단과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승부해야 한다.

## Trend 7. Mannish Mood

런웨이 전방위에 퍼진 매니시한 기운은 밀리터리 디테일을 적용해 더욱 쿨한 아웃핏을 연출해냈다. 남자 친구의 옷장에서 빌려온 듯 큼지막한 어깨 라인과 넉넉한 실루엣에는 극도로 여성스러운 이너 웨어와 액세서리를 가미해 반전 매력을 더할 것. 이를테면 재북 스타일의 밀리터리풍 코트에 모피를 덧대고 벨트로 우아한 무드를 강조한 마르니와 랑방, 하늘거리는 슬림 드레스로 차명적인 여성미를 드러낸 루이 비통, 카무플라주를 패치워크 형태로 여성스럽게 해석한 크리스토퍼 케인처럼 말이다.

## Trend 8. Leopard Chic

날씨가 추워지면 기세등등해지는 애니멀 프린트의 위력은 이번 시즌에도 유효하다. 올겨울 다채로운 프린트를 쏟아낸 버버리는 애니멀 프린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그래픽적으로 해석한 송치 코트나 모피에 레이퍼드 프린트를 입힌 트렌치코트 등으로 모던한 코트 룩을 연출했고, 에르마노 쉴비노는 살아 움직일 듯한 레이퍼드 프린트와 스키프로 화려한 멋을 강조했다. 애니멀 프린트를 가장 멋지게 소화하는 방법은 프린트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단추를 모두 잠가 원피스처럼 연출하거나 프린트에 포함된 컬러의 액세서리로 통일감을 줄 것. 몸판 전체가 동물 프린트로 뒤덮인 디자인이 부담스럽다면 요크나 소매, 칼라 등 디테일에만 프린트가 트리밍된 스타일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에디터 이예진

셀린 02-6905-3481 구찌 1577-1921 다음 02-513-3232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비비안 웨스트우드 02-543-1713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칼로에 02-3438-6043 마르니 02-3445-3664 프라다 02-3443-6047 생로랑 02-3438-7627





# Winter Glory

영롱하게 빛나는 화려한 하이 주얼리와 이국적인 무드,  
 드라마틱한 볼륨감이 어우러진 배우 장미희의 관능적인 패션 모멘트.

*photographed by yoo young gyu*

지그재그 패턴을 입힌 핑크 퍼쿠트  
 콜롬보 비아엘라스피가. 화이트 골드에  
 523.26캐럿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사카라 네크리스.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우라 이어링. 원손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아나벨 링 모두 드비어스.

블랙 튜브 드레스 질센디, 안에 겹쳐 입은 편칭 디테일 스커트 지방시 by 리카르도 티시, 뱀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암바 네크리스 부쉐론,  
 핑크 골드 베를리 커프 브레이슬릿과 원손 약자에 착용한 새 깃털 모티브의 오와조 드 파리디 블루테 링 모두 반클립프 아벨, 리퍼인드 리베리온 이어링, 원손 감자에 착용한 옐로 스톤 인렛처 링 모두 타사키.







모피를 덧댄 화려한 비즈 장식 드레스 루이 비통, 코끼리 모티브 클러치 백 주디스 리버 by 수피노알,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머더오브펠과 다이아몬드 세팅 링, 약지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링 모두 볼가리, 왼손에 착용한 팬더드 가르피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 브레이슬릿 가르피에, 왼손 검지에 착용한 페가수스 링 부세론.



벨벳 톱과 재킷, 팬츠 모두 에르메스, 초커 형태의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 네크리스와 이어링,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빈지 모두 가르피에, 깃털 모티브 펜던트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가닛을 세팅한 길러드 파라디 컬렉션 네크리스, 구겨진 듯 독특한 질감의 핑크 골드 배틀리 컷 브레이슬릿 모두 반클리프 아펠,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남양 흑진주 세팅의 벨란스 이글링스 링 타사키, 배경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레이디메틱 워치 오메가.





오라기디 디테일 블랙 드레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블랙 시폰이여 루비로 눈을 장식한 후조 이어링, 왼손 검지에 착용한 흑조 광과 백조 광 모두 부세론, 왼손 약지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링 카르띠에, 오른손에 착용한 디바 컬렉션 브레이슬릿 불가리, 오른손 중지에 착용한 새 깃털 모티브의 오와조 드 파라디 블루태 링 반클립프 아펠,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데인저 트럼 링 타사키.



블랙 텍시도 새깃 발랑, 메이텐트 스커트 버버리 런던, 링크스 퍼코트 풀플로 비아셀라스피가, 클라치 백 스와로브스키,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드롭 이어링, 플라타네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바케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브로치, 뱀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세르펜티 컬렉션 워치 모두 불가리, 왼손 검지에 착용한 스테이크 링 부세론,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랜더드 카르띠에 리카르다 링 카르띠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착용한 아코야 진주와 블랙 엘레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리파인드 라벨리온 링 타사키.





아계를 강조한 하운즈투스 체크 드레스 **구찌**, 시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비올레타 이어링, 원손에 착용한 범을 연상시키는 **쌍행**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과 링, 원손 검지에 착용한 허비스커스 링,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다이아몬드와 시파이어를 세팅한 영무새 모양의 누리 시파이어 링 모두 **부세론**, 오른손에 착용한 러브 버드 모티브 나뉘덜링 컬렉션 브레이슬릿과 약지에 착용한 링 모두 **까르띠에**.

- 조르지오 아르마니 02-3447-7701
- 구찌 02-3444-3169
- 에르메스 02-3015-3251
- 질 샌더 02-546-3067
- 발렌시아가 02-6943-7007
- 콜롬보 비아델라스피가 02-512-6954
- 방랑 02-6905-3585
- 지방시 02-517-7560
- 버버리 런던 02-3485-6536
- 루이 비통 02-3441-6464
- 다울 02-513-3232
- 부세론 02-543-6523
-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 까르띠에 02-1566-7277
- 드비아스 02-3438-6116
- 불가리 02-2056-0172
- 타사키 02-3461-5558
- 오메가 02-511-5797
- 수퍼 노발 02-511-0991
- 유게슬 070-4216-9142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신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헤어 **이혜연 (AVEDA)**  
메이크업 **송혜진 (손앤손)**  
스타일링 **심우찬**  
스타일리스트 **조윤희**  
어시스턴트 **송수빈, 박정아, 친지은**  
헤어터 **권유진, 이예진**

드라이웨어 **본보이는** 슬리브리스 블랙 드레스 **발렌시아가**, 스톤으로 장식한 블랙 스틸레토 힐 **다울**, 에메랄드와 자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영무새 모티브 나뉘덜링 컬렉션 이어링, 화이트 골드 블랙 래커 처리한 파리 누벨라그 컬렉션 브레이슬릿과 링 모두 **까르띠에**, 밴드와 다이얼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컨스텔레이션 쿼드렐라 하이 주얼리 워치 **오메가**, 소품으로 사용한 의자 모두 **유게슬**.



# homage to the Muse



1 재키 백을 매고 구찌 가방을 내는 제럴딘 케네디 오나시스 모습.  
2 기쁨을 잃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패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모습. 클래식한 토트 백을 들고 있다. 3 불가리아의 아이본이 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 4 다이애나의 이나셀 D를 더해 새롭게 선보인 D.D 백. 5 제럴딘 케네디 오나시스가 퍼스트레이디 시절 즐겨 착용했던 티파니의 잔 술람버제 컬렉션. 6, 7 지금까지도 불멸의 클래식으로 남아 있는 켈리 백의 버진 백. 8 모나코의 왕비였던 그레이스 켈리의 시를 받은 구찌의 플로리 컬렉션. 9 리처드 버튼이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선물한 불가리아의 에메랄드 링.

시간은 아름다움에 클래식이라는 영광을 더해준다. 여기에 '여배우'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그 생명력은 더 큰 오라를 얻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 흑백사진 속 여배우들을 오마주한 제품이 지금까지 거부할 수 없는 클래식이 된 이유다.

## 여배우의 패션, 귀족적 클래식의 상징이 되다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는 셀러브리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드라 마 속 여배우의 가량은 다음 날 바로 품절을 기록하고, 부장진 사모님 역할을 맡은 중 년 여배우가 입을 의상도 예외는 아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장식한, 대중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패션계에 늘어난 영향력을 떨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아이템을 클래식의 반열에 오르게 한 위대한 여배우들의 이름이 떠오른다. 패션 아이콘의 대표적인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는 여배우로, 모나코의 왕비로 패션계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1956년 그녀가 임신한 배를 감추기 위해 들고 있던 사다리꼴 모양의 빨간 악어 가죽 가방은(본래 이름은 '쁘띠 삭 오뜨이다') 지금까지 '켈리 백'이라 불리며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 (라이프)에 실린 이 단 한 장의 사진은 패션 역사에 '귀족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절대 불멸의 화석'이 되었다. 수십 년간 구찌를 대표하는 아이콘인 플로라 컬렉션 역시 그레이스 켈리를 위한 것이었다.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는 10대 시절 이미 어머니인 그레이스 켈리에게 플로라 패턴 블라우스를 선물 받기도 했다. 여배우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산 퍼스트레이디 제럴딘 케네디 오나시스 역시 마찬가지다. 공식 석상에 다양한 디자인의 구찌 백을 매치한 모습이 전파를 타자 세계는 구찌에, 제럴딘에게 열광했다. 그 옛날 브랜드 초기부터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바로 재키 백이었고 구찌의 화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셀러브리티와의 돈독한 관계 아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티파니의 전설적인 컬렉션인 잔 술람버제의 브레이슬릿 역시 '재키 팔찌'라는 애칭 아래 미국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니 가장 패셔너블한 퍼스트레이디로 꼽히는 제럴딘의 매력은 지금 할리우드 스타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 영화 같은 삶, 그 자체가 패션

명품 마케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멋진 디자인은 기본, 잊을 수 없는 스토리를 덧붙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 여배우는 아름다움 뿐 아니라 영화보다 더 멋진 삶이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 이야기에 꾸며줄 필요가 없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광고할 필요도 없다. 바로 이러한 멋진 스토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여배우를 오마주하는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이다. 2013년 불가리아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발표하며 세기의 아이콘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나는 그녀에게 백을 소개했고, 그녀는 내게 불가리아를 소개했다." 그 어떤 광고 캠페인보다 멋지지 않은가. 불가리아는 이번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하며 불가리아 엘리자베스 테일러 프라이빗 컬렉션을 함께 선보였는데 이 제품들은 2011년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다. 그중 1962년 불가리아에서 만든 플래티넘 소재의 팔각형 에메랄드 링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처음으로 리처드 버튼에게 받은 주얼리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링은 2002년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재단 자선 경매에서 판매되었는데 당시 테일러는 이 링 예물을 남겼다. "사랑을 간직하세요(Wear it with Love)", 비극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우아함의 결정체로 승화된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스타일과 에티튜드, 라이프 스타일 모든 면에서 많은 여성들을 사로잡았는데, 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은 이탈리아 브랜드 토즈다. 평소 토즈의 'D' 백을 즐겨 사용하는 다이애나의 모습이 많은 매체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 해 토즈는 (타임리스 아이콘)이라는 주제로 다이애나의 회고전을 개최하며 다이애나의 이나셀을 딴 'D.D' 백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로열 패밀리 전통에 따라 지금의 왕세자비인 케이트 미들턴 역시 D 백을 애용하기에 토즈는 지금까지 다이애나로 인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패션인, 여전히 삶이 있는 클래식의 아이콘을 꿈꾸려면 제인 버킨을 들 수 있다. 이름으로도 클래식이 되어버린 '버진 백'은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 겸 영화배우인 세르주 갱스부르의 부인,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것이다. 물론 제인 버킨 자체가 유명한 모델이자 영화배우이지만, 남편인 갱스부르의 보헤미안 이미지와 화학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 중요하다. 1984년 이 커플을 비행기에서 만난 장-루이 뒤마 에르메스(5대 회장)는 제인 버킨이 들고 다니는 밀집으로 만든 시장 가방을 보고 그녀를 위해 특별한 가방을 선물했는데, 이 검은색 가죽 가방이 프렌치 시크를 상징하는 버진 백이 된 것이다. 최근 과거의 여배우들의 뒤를 이어 새롭게 등장한 현대적인 명품의 아이콘은 말버리의 알렉사 청, 루이 비통의 소피아 코폴라 같은 예술계와 패션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버전의 셀러브리티다. 하지만 이들을 다스림 거론한다 해도, 흑백사진 속에 담겨 있는 여배우들의 매력은 여전히 견제하다. 여배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스토리,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던 고유한 이미지는 억지로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간이 흘러도 절정의 아름다움 모습만 남는다는 것이다. 운명을 달리한 아름다운 여배우들은 더 이상 스크린에 휩싸이지도 않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도 않으며 그저 사진 속에서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고 있다. 명품 마케팅 입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그녀들을 삶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브랜드에 가장 맞는 연만을 부각시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이보다 더 좋은 소재를 찾기 어렵다. 비일성로운 스토리로 점철된 여배우의 인생은 명품 브랜드를 만나 채색되고, 명품 브랜드는 장인 정신이 핀다자리는 남다른 오라를 더하며 서로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한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그녀들을 안쓰럽다 생각할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 있는 동안 가까이 브랜드에 키스를 보내면, 패션을 사랑했던 여성이기에 눈살을 찌푸릴 이유는 없다. 힘 없이 바뀌는 패션계에 아름다운 여성이 남긴 멋진 아이템이 세월을 거스르며 영원히 명예를 얻는 것이 눈부시지 않은가. 지금으로부터 1백 년이 지난다 해도 여배우의 인생이 담긴 클래식한 아이템은 수많은 여성들의 로망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 Natural perfection

타고난 피부 미인이 아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본연의 피부가 좋은 듯 맨얼굴처럼 자연스럽게 건강한 피부를 연출하는 샤넬의 CC크림이 있다면 말이다. 다섯 가지 스킨케어 기능과 메이크업 효과를 단 하나의 제품에 담은 CC크림이 올해 새로운 컬러를 추가해 바쁜 현대 여성에게 생기 넘치는 완벽한 피부를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피부를 위한 내추럴 뷰티

최근 몇 년간 뷰티 시장에 큰 획을 그은 화장품들 들라던 단연 BB크림을 꼽을 수 있다. 피부 좋은 여자 연예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소개되며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바꾼 BB크림은 메이크업 트렌드 변화에 핵심이 된 제품 중 하나. 4년 전까지만 해도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까지 발라 빈틈 없이 꼼꼼한 베이스 메이크업에 열을 올리던 여성들이 이제는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바르는 내추럴 메이크업에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맨얼굴처럼 건강하게 연출하느냐가 아름다움 피부 표현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BB크림이 화색이 도는 칙칙한 컬러, 들뜨는 재형 등의 단점으로 그 인기가 추츨할 무렵, 이를 대체해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 바로 CC크림이다. CC는 'Complete Correction'의 약자로, CC크림은 BB크림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킨케어 기능을 강화해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스킨케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메이크업 제품. 현재 다양한 CC크림이 출시되고 있지만, 사실 CC크림의 시초는 샤넬이다. 다섯 가지의 스킨케어 기능과 메이크업 효과를 단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시킨 샤넬의 혁신적인 CC크림은 BB크림을 제치고 다양한 '미투(me too)' 상품을 탄생시킬 만큼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복잡한 메이크업 과정이 하나로 줄어들면서 바쁜 아침에 출근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가꾸주는 스킨케어 성분과 화사하고 고른 피부 보정력까지 갖추었다. 그 때문에 마치 원래 피부가 좋은 듯 윤기가 흐르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원하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메이크업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바를 수 있어 초보자는 물론 수시로 피부 보정이 필요한 직장인 여성에게도 안성맞춤이다.

## 다섯 가지 스킨케어 효과를 한번에

샤넬의 CC크림이 특별한 것은 진정, 보습, 보호, 예방, 피부 톤 정돈이라는 다섯 가지 스킨케어 효과 때문이다. 수레국화수액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풍부한 보습을 전달하며, 미세 알 자외선 차단 성분이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 또 리주벤시아 성분이 자연적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보다 젊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마지막으로 CC크림에 함유된 미세알 색소가 붉은 기, 잡티 등의 피부 결점을 커버해 고르고 화사한 피부 톤을 선사한다. 얼굴을 두 구역으로 나눠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을 비교해보았을 때, CC크림을 바른 피부 표면이 훨씬 매끄러워 보이는 것은 물론, 피부 톤 역시 고르게 정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번 덧바르면 커버력은 높아지지만 두껍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것이 장점. 벨벳같이 부드러운 텍스처는 얇게 피부에 밀착되어 은은한 윤기를 표현한다. 작년에 20호 베츄 컬러를 출시한 데 이어 새롭게 추가한 핑크 빛의 12호 베츄 로제는 아시아 여성의 노란 피부를 화사하게 보정하며, 피부 톤이 다양한 여성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20호 베츄, 12호 베츄 로제(NEW) 30ml 7만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 the dream Skin

2014년 1월, 기존 코즈메틱 제품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제품과 만나게 된다. 나이와 피부 톤에 상관없이 피부결과 피부 톤에 동시에 작용해 노화에 대항하는 궁극적인 스킨케어 제품, '디올 캡춰 토탈 드림스킨(Dior Capture Totale Dreamskin)'이 바로 그것이다.

## 디올 사이언스의 성취: 그동안 꿈꿔온 모든 것들의 조화

보다 완벽한 스킨케어에 대한 열망은 지칠 줄 모른다. 어찌 보면 그 열망 자체가 뷰티업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일 것이다. 더욱 탄력 있게, 더욱 매끄럽게, 더욱 깨끗하게... 이런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 중 하나인 디올, 디올의 사이언스는 그 열망에 부응하는 신개념의 하이브리드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또 한 번의 뷰티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올 연구팀이 고민한 이상적인 스킨케어 솔루션의 출발점은 '나이와 피부 톤에 상관없이 피부결과 피부 톤에 동시에 작용해 노화에 대항하는 스킨케어 제품'이었다. 디올 연구진은 바르자마자 피부 표면의 결점이 사라져 놀랍도록 완벽한 피부를 선사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에이징-디피잉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포물리를 꿈꾸었다. 그 결과, 이 어우러지기 어려운 요소들을 조화시킨, 한결 진화된 스킨케어 제품이 탄생했다. 이 모든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팀은 3백여 개의 성분을 분석했고, 2백 번 이상의 포물레이션 연구를 실행해야만 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과 시각 행동 연구도 포함되었다는 것. 디올 연구진은 전 세계의 20~70세 여성 8백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실시해, 여성들은 나이와 피부 톤에 관계없이 다크스팟이나 착색된 부분이 없는 빛나고 균일한 피부, 모공이 보이지 않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원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또 프랑스의 행동 신경학 교수인 아르노 오베르 박사(Doctor Arnaud Aubert)와 함께 수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역시 흥미롭다. '아이 트래킹(eye tracking)'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얼굴의 아름다움에 대한 매커니즘을 밝혀낸 것. 얼굴을 바라본 순간,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피부 광학 행동(optical behavior of the skin) 연구를 통해 사람의 눈에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피부는 각 층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밝혀냈다.

이처럼 캡춰 토탈 드림스킨의 탄생 뒤에는 40년간 정성을 쏟은 빛과 피부에 대한 연구와 15년간 진행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축적한 디올 연구진의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다. 디올은 피부가 어떻게 빛을 흡수하고 처리하고 반사시키는지 밝혀 모든 피부 타입에 적용되는, 시각적으로 완벽한 피부라고 여겨지는 피부 원칙을 구축했으며, 완벽한 피부결의 원천인 줄기 세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두 전문 분야를 하나의 포물리에 담아 드림 스킨을 탄생시켰다. 광학적인 피부 표면 개선뿐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까지 모두 작용하는, '이상적인 스킨케어 제품'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다. 디올 연구진이 개발한 미네랄 바이오메틱 성분 복합체는 표피층의 광학 성분을 재생신해 피부를 즉각적으로 균일하게 회복시켜 피부 톤을 개선하고, 매끄러움을 배가시킨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는 디올의 민속 식물학 연구진이 개발한 희귀한 성분인 롱고자(Longoza)와 오피리아(Opilia) 추출물이 피부 속까지 침투해 피부의 탄력과 광채를 되찾아주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혁신적인 아름다움은 이제 열정과 과학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로 이상적인 피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캡춰 토탈 드림스킨은 수많은 스킨케어 제품 중 가장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다. 이로써 누구나 꿈꾸는 피부에 대한 해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닐까? 디올 캡춰 토탈 드림스킨 30ml 14만원. 문의 02-3438-9537



1 지난 10월, 프랑스의 상징 드브레에 있는 디올 연구센터 알리오스(Alios)에서 열렸던 캡춰 토탈 드림스킨 프레젠테이션 행사장 전경. 한국에도 1월에 론칭한다. 2 디올 기든에서 수확된 플로럴 활성 성분들은 디올의 독자적인 불만공을 통해 꿈의 피부를 실현해주는 탁월한 제품으로 재탄생했다. 3 곧 출시되는 디올의 캡춰 토탈 드림스킨은 나이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안티에이징과 레디언스 효능을 발휘하는 카멜레온 제품으로, 기존의 스킨케어 사용 후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신개념의 스킨 크리에이터이다. 4 디올의 민속 식물학 연구진은 마디가스카르, 부르키나 파소 등 세계 곳곳 희귀 식물들의 성분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 Special Q&A

에두아르 모베-자르비스 (Edouard Mauvais-Jarvis, 디올 사이언스 커큐레이터 디렉터)

**01 드림스킨이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나이, 피부 타입, 피부 톤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피부를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첫 번째 하이브리드 스킨케어 제품이기에 때문입니다. 드림스킨은 세 가지 효능의 스킨케어 제품(완벽한 안티에이징 기능의 스킨케어,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다크스팟과 붉은 기를 완화해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제품)이 지닌 장점을 하나로 결합한 제품입니다. **02 드림스킨이 세대를 아우르는 스킨케어 제품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드림스킨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한 갈라와 피부결을 개선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가 어떤 요소들을 케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스킨케어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03 드림스킨이 카멜레온 스킨케어 제품인 이유는?** 드림스킨은 색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과 피부 톤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과 달리, 피그먼트로 피부를 커버하거나 색을 입혀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자연적인 광학적 특성들을 되살려주는 것이죠. **04 드림스킨을 기존의 뷰티 루틴과 함께 사용할 때는 어떤 단계에 사용하면 되나요?** 드림스킨은 스킨케어 루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로션-아이크림-에센스-크림 순서로 사용했다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크림 다음에 드림스킨을 사용하세요. 더욱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해 드림스킨을 바른 후 캡춰 토탈 파운데이션을 바를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앙테오가 제작한 패키지에 담긴 LXP 명작 시리즈. (왼쪽부터) LXP 알티미트 퍼펙팅 에센스(150ml 32만원대), LXP 알티미트 퍼펙팅 세럼(50ml 35만원대), LXP 알티미트 퍼펙팅 크림(50g 39만원대), LXP 알티미트 퍼펙팅 아이크림(15g 22만원대)

# masterpiece of Pitera

장인의 섬세한 손길로 한 방울 한 방울 빚어낸 럭셔리 피테라™ 최고의 명작 SK-II LXP. 기존의 알티미트 퍼펙팅 에센스와 세럼, 크림에 아이크림을 추가하며 네 가지 명작 시리즈가 완성되었다. SK-II 로열 유저인 백은하 작가가 말하는, LXP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와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럭셔리 피테라™ 최고의 명작, LXP

나이 든 주조사의 손이 아끼처럼 부드럽고 곱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서 비롯된 SK-II의 독자적인 효도 성분 피테라™. 브랜드의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성분인 피테라™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피부에 맑고 투명한 기적을 선사해왔다. 피테라™ 하면 떠오르는 '페이셜 트리 트먼트 에센스' 외에도 럭셔리 피테라™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LXP 라인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두꺼운 고객층을 확보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오직 피테라™만을 연구해온 장인이 인위적인 가공을 일절 배제하고 8배 고농축한 최상급 럭셔리 피테라™를 한 방울 한 방울 모아 완성한 것이 바로 LXP 라인이다. 발효 과정부터 오랜 시간 정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성과 엄격한 공정을 거쳐 소량 생산만 가능한 진귀한 제품이기도 하다. 특히 풍부한 보습과 영양이 필요한 이 계절에는 품귀 현상을 빚는다고. 고농축 피테라™에 견줄 만한 진귀한 성분인 로즈 압솔루트도 안티에이징 효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명작의 품격을 드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일찍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성분으로 자주 쓰이던 장미를 화장품에 접목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SK-II는 더욱 특별한 장미인 로즈 드 메이를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칸의 그라스 지방에서 수확하는 이 장미는 1kg당 무려 1만 달러에 이르고, 4톤의 장미를 모아야 비로소 4.8kg의 로즈 압솔루트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매우 고귀한 성분이다. 이 로즈 드 메이는 세계적인 향수 '장 파투 퍼플'과 오직 LXP에만 사용하도록 허락되어 특별함을 더한다. 여기에 마디가스카르에서 발견한 기적의 식물, 셸렐

라 에센스를 비롯해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비결로 알려진 리치 에센스, 첨단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스킨 리제네레이팅 Activ™ 등 신성분과 첨단 기술력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었다. LXP를 대표하는 알티미트 퍼펙팅 크림을 비롯해 퍼펙팅 에센스와 세럼으로 구성된 기존의 라인에 아이크림이 합체하며 완벽한 명작 시리즈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것. 기습까지 스며드는 은은한 장미 향과 풍부한 질감, 팽팽한 탄력을 넘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LXP는 단순히 스킨케어를 넘어 편안한 휴식을 주는 고품격 럭셔리를 경험하게 한다.

## 백은하 작가의 꽃잎처럼 아름다운 LXP 스토리

SK-II는 어떤 코즈메틱 브랜드보다 충성심 높은 로열 유저를 자랑한다. 한번 경험해본 이들은 확실한 효과와 남다른 품격에 매료되어 쉽게 바꾸지 않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LXP는 앙테오 인테리어 디자이너뿐 아니라 꽃 그림 작가로 잘 알려진 백은하 작가가 로열 유저를 자처하고 나섰다. 백은하 작가와 SK-II의 인연은 2010년 브랜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피테라 에센스 아트 콜라보레이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XP 크림을 두통째 쓰고 있었던 그녀는 좋은 제품이라 작업에 흔쾌히 응했고, 이후 다양한 라인까지 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많은 제품 중에서도 LXP 라인에 흠뻑 빠졌다는 백은하 작가는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오감을 채워주는 LXP가 자신의 완벽한 힐링 파트너라고 이야기한다. 하루 일과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LXP 라인은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을 선사한다고. 자신의 꽃 그림 작업과 숙련된 장인의 정성, 노후로 완성하는 LXP 시리즈의 공통점에서 착안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남자처럼 뭉툭한 손이 가족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면서 서서히 예뻐진다는 내용인데, 이는 장인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낸 피테라™와 주제가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는 "먹는 것만큼이나 화장품 역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야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에요. 피부가 금방 기적같이 변한다는 말은 잘 믿지 않죠.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독자적인 성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통성 있는 브랜드인지 살펴보고 그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정말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피부 관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덧붙여 작은 부분도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생각, 친구와 지인과의 좋은 유대 관계 역시 삶을 건강하게 가꿔주는 힘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백은하 작가는, 그녀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는 다 이유가 있었다. 문의 080-023-3333 **에디터 이예진**



# Band your age

모공이 보이지 않을 만큼 촉촉한 탄성 피부는 여자들의 꿈이다. 탄성이란, 노화에 대응해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본연의 성질로, 건강한 피부일수록 수분, 밀도, 탄력이 탁월한 조화를 이룬다. 발림성, 안티에이징 효과, 촉촉함까지 갖춘 탱탱한 탄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 숨37°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크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자연의 생명력을 직시하다, 아름다운 자연 발효 화장품 숨37°

실내와 야외 모두 건조함으로 가득한 1월, 여자들은 특별한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찾게 된다. 자극적인 화장품보다는 순하고 촉촉한 남다른 화장품을 찾고 있다면 자연 발효 화장품은 어떨까. 국내 발효 화장품의 대표 주자인 숨37°는 백화점에서 무엇보다 제품력으로 인정 받은 브랜드로 생명, 정성, 기다림의 아름다운 시간을 거쳐, 자연의 생명력을 온전히 담은 자연 발효 화장품이다. TV에서 여배우 한효주가 말 그대로 고운 얼굴로 추천하는 숨37°의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는 1분에 1개씩, 자크까지 1백50만 개 이상 판매된, 브랜드를 대표하는 메가 히트 제품.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호흡을 의미하는 숨과 삼의 온도(체온)를 의미하는 37°C를 결합한 이름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를 잘 담고 있다. 발효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따른다는 사실과, 정성을 쏟아 화장품을 만든다는 사실이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숨37°의 모든 제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텍스처다. 오랜 시간 발효를 통해 정성스럽게 완성한 만큼, 피부에 빠르게 스며든다. 스테디셀러인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의 뒤를 이어 안티에이징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컨센트레이트 크림 역시 발림성이 뛰어나다. 8천원 전 인류 최초의 발효 기원지인 그루지아 지역의 전통 발효법을 도입해 완성한 안티에이징 제품은 무겁고 답답하다는 편견을 단번에 깨뜨리는 제품이다. 자연 발효 화장품이기에 이질감이나 두꺼운 느낌 없이 부드럽게 발린다. 두 제품 모두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뛰어난 기능성 화장품인데도 마치 수분 케어 제품처럼 흡수력이 뛰어나다.

## 탄성 밴드를 회복시켜 젊음을 살리다, 시크릿 리페어 탄성

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숨37°의 연구진이 가장 주목한 것은 피부 속 탄성 밴드다. 이는 탄성을 결정하는 피부 구조체로, 피부 젊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탄성 밴드의 수분이 빠지고 조직이 붕괴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밀도가 저하되어 결국 얼굴선이 무너진다. 반대로 피부의 탄성 밴드가 건강하면 수분, 밀도, 탄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숨37°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컨센트레이트 크림은 8천 원을 이어나 그루지아의 전통 발효법을 통해 얻은 탄성 활성화 성분, 슈퍼 폴리페놀™을 함유해 피부 속 잠자던 탄성 밴드를 촉촉하고 탄탄하게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깊고 진한 발효 성분이 피부 속 탄성 밴드에 작용해 팽팽하고 힘 있는 피부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 숨37°의 에센스를 써본 여성이라면 기대가 클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는 스킨 다음 단계에 바르는 제품으로 발효에 발효를 더해 깊고 진한 고농축 텍스처를 담아 발림성이 뛰어나다.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크림은 안티에이징 크림의 끈적함은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수분 크림보다 발림성이 뛰어나다. 습윤 레이어링 기술로 완성한 고농축 텍스처가 밀착감 있게 발리면서 부드러운 느낌은 그대로 살렸다. 뽀뽀해서 두껍게 발라야 했던 안티에이징 크림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꼭 한번 사용해볼 만한 제품이다. 단순한 보습을 뛰어넘어 다음 활실한 피부 변화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자연 발효가 완성한 새로운 시크릿 리페어 안티에이징, 두 가지 제품은 좋은 해답이 될 것이다.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50ml 12만5천원,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크림 50ml 11만8천원. 문의 080-023-7007 **에스티 라퍼**

# relaxed Luxe

아무리 쫄쫄 싸매고 다니는 계절이라도 메마른 몸을 마주하는 건 꽤나 슬픈 일이다. 한겨울 길어진 밤은 피부를 재건하는 최적의 조건. 까칠한 피복결,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크고 작은 뾰루지 등 눈에 띄는 보디 트러블을 잠재우고 싶다면 보습력이 풍부한 보디 제품을 곁에 둘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코코 마드모아젤 발뿔 바디 오일 가벼운 마무리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스프레이 타입 보디 오일. 샤워 후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뿌리면 하얀 기분 좋은 향과 촉촉함이 남는다. 보디 오일뿐만 아니라 포밍 샤워 젤과 모이스처라이징 보디로션까지 갖추어 사체의 보디 케어 라인을 좋아하는 이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0ml 8만3천원. 문의 080-332-2700

이슬 제라늄 리프 바디 밤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제라늄 잎 추출물과 시트라스 추출물이 만나 신뜻한 촉촉함을 주는 보디 밤 제품. 보습에 좋은 당근과 알로에 베라 성분이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한다. 연고를 떠올릴 만큼 농밀한 제형이라 팔꿈치나 무릎 등 특히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 비르면 효과적이다. 120ml 4만원. 문의 02-547-5987

프래쉬 리스 드라이 오일 비타민이 듬뿍 담긴 쉐어 성분이 농축된 보디 오일. 발림성이 좋아 적은 양으로도 허벅지나 복부 등 넓은 면적을 마사지하기에 좋다. 흡수력이 남달라 바쁜 아침에 바르거나 옷을 바로 입어도 묻어가지 않는 것이 장점. 로션을 바르고 오일을 덧바르면 두꺼운 보습막이 생겨 건조해짐이 없다. 100ml 9만원. 문의 080-822-9500

에스티 로더 라-뉴트리브 인텐티브 스무딩 바디 크림 겨우내 듬뿍들룩 발라도 좋은 낙낙한 대용량 보디 크림. 로즈메리 추출물과 석류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는다. 오랜 시간 수분을 붙들고 있어 자갈찬 뾰루지나 각질 등 피부 트러블을 빠르게 잠재운다. 300ml 20만원대. 문의 02-3440-2772

클라린스 모이스처 리치 바디로션 가장 바르기 편한 모이스처라이저 질감에 풍부한 보습력과 끈적임 없는 마무리로 계속 손이 가는 보디로션. 포도씨와 복숭아 추출물이 고르지 않은 피부결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사지를 할 때는 상점에서 가장 먼 발부터 하리로. 상체는 팔목부터 어깨까지 마사지하는 것이 요령. 200ml 4만5천원. 문의 080-542-9052

조 알론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이드 보디 크림 역시 향수 레이아웃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조 알론 단계 무장을 열면 피자는 풍부한 향이 코끝을 자극한다. 단독으로 발라도 오랜 시간 지속되는 블러쉬 스웨이드의 진한 막에 향수가 필요 없을 정도다. 피부결을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코코아 바터와 스워드 이룬드 같은 유연성 성분을 담았다. 175ml 11만원대. 문의 02-3440-2750

리프라이 스킨 케어 리스 수플레 바디 크림 케어, 해링 추출물, 식물 추출물이 들어 있는 보디 트리트먼트 크림. 수플레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피부에 닿자마자 녹는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이 특징이다. 특히 건조한 부위를 꼭꼭 눌러 마사지하면 갈라진 피부가 금세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스트 추출물과 소이 아미노산의 각질 제거 기능을 겸했다. 150ml 40만1천원. 문의 080-511-6626

비오셀 오일 테라피 보디로션을 열성히 발라도 건조함에 시달리고 토로하는 이들에게 제안하는 보디 오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로즈힙 오일과 피부에 윤기를 돌게 하는 시카로 오일, 비타민 A와 D가 풍부한 살구씨 오일 등 세 가지 천연 오일의 훌륭한 조합이 메마른 피부를 유연하게 한다. 오일 제형인 만큼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비르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125ml 5만2천원. 문의 080-022-3332

샤이도 리플리시싱 바디 크림 사색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텍스처가 사르르 녹아 윤기를 남기는 안티에이징 보디 크림. 사탕 산사나무 추출물이 항염을 촉진해 피부 톤이 건강해 보이며, 셀룰라이트가 쉽게 뿔치지 않도록 돕는다. 손에 착당당 떨어뜨려 얼굴 가까이 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 알리웃 향이 아로마 효과를 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0ml 9만2천원. 문의 080-564-7700 **에스티 라퍼**





# Creating new out of old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미학은 상상에 있다. 아티스트 고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스타일에 맞추는 컬래버레이션의 황금률을 지키는 것도 나름의 예술이 아닐 수 없다. 새로움을 모색하는 데 지나치게 경도되면 브랜드의 정체성이 바래고, 그렇다고 브랜드의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티스트의 창의적인 시도는 날개조차 펴지 못하고 파묻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포드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Lincoln)은 '컬레보노믹스의 미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예술계의 혁신적인 인물들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링컨 리이미진 프로젝트(Lincoln Reimagine Project, LRP)'의 면면을 보노라면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시너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링컨은 전통을 거부할 수도 없고, 뿌리쳐서도 안 되는 유서 깊은 브랜드이다. 20세기 초반 자동차 업계의 선구자였던 헨리 마틴 릴런드가 그의 영웅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름을 따 설립한 브랜드라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전통에서 창조하는 새로움(Creating New out of Old)'이라는 문구가 딱이나 잘 어울린다. 게다가 말미에 있는 'old에서 new'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링컨의 신차 디자인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위풍 당당한 전통의 오라가 배어 있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가 과도하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 '혁신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라는 명언이 피부로 와 닿는다. 사실 이처럼 전통의 자산을 토대로 한 혁신은 많은 예술가들이 평생에 걸쳐 안고 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자기 복제를 지양하고 창조적 변화를 추구하되, 본연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일에 더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난해 서울 신사 전시장에서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링컨의 아트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리이미진이' 선택한 3명의 국내 아티스트는 발군의 조합이었다.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식이나 시각에서 혁신을 일삼아 온 포토그래퍼 한성필, 사진 조각이라는 분야를 개척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권오상, 그리고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앞세워 재기발랄한 미디어 아트로 주목받고 있는 에브리웨어. 일단 이들의 컬래버레이션 결과물이 빈껍데고 고무적인 것은 차체에 물방울이나 줄무늬를 입히는 식 등 이쪽 분야에서 다소 식상해진 아트 카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분야에서 한계를 거부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사고를 작품 세계에 반영해온 아티스트답다고나 할까. 그래서 브랜드와의 '궁합'이 더욱 돋보였다. 링컨의 아시작 MKZ를 2주간 몸소 주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떠오른 영감을 발산한 이들은 아구동성으로 "커다란 자유를 느꼈다"며 덕분에 스스로의 창조 여정에서도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차를 잊지는 않았다. 세 그룹 모두 차체에 손길이 닿지 않았을 뿐이지 자동차이기에 의미를 품을 수 있는 재치 어린 요소를 창의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자연스럽게 저마다의 작품에 반영했다. 이 글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순서는, 굳이 전시장을 찾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건물 바깥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한성필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작품인 건물 외벽을 감싸는 커다란 가림막은 전시장 내부로 들어가 '공간과의 대화'를 접하게 만드는 유도체이니까 말이다.



## LRP 1\_by HAN SUNGPIL 행인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환상적인 가림막, 도심에 중세풍 시장을 들여놓다

흔히들 선호하듯 자동차의 래핑(wrapping)을 시도하는 대신 건물 전체를 감싸버리는 대형 파사드(façade)를 설치한 건 아무래도 '신의 한 수'였다. 거리를 걷는 행인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타고 바빠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까지 절로 사로잡기 때문이다. 아무리 괜찮은 전시회라도 '모객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랴. 링컨 전시장 건물은 반잡한 도심의 풍경이 절제 드러운 서울 강남의 도산 사거리 모서리에 자리 잡은 터라 중세 유럽의 시장을 재현했다는 한성필 작가의 고풍스러운 사진은 더욱 시선을 잡아끈다. 동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지만 콜라주 형식의 사진이란다. 이 건물이 위치한 사거리에는 온갖 종류의 차들이 설 새 없이 지나다니는 터라, 환하게 켜진 링컨 MKZ의 헤드라이트가 시장을 비추는 사진 속 풍경은 한결 이색적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눈발이 내렸을 때였지만, 이제는 첨단 문명의 상징이 된 강남의 역사적 맥락이 스며든 도산 사거리에 전통과 현대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공간을 창조하고 싶었다고 한 작가는 설명한다. 상상과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를 가림막 하나로 허무는 것이다. 실제와 가상의 간극을 허무는 '비주얼 일루저니스트'라는 별칭을 가진 아티스트다운 의도다. 사실 건물에 마치 그림 같은 느낌을 활용한 파사드를 창조하는 건 한 작가의 주특기이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를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만들기도 했다. "지정할 곳이 마땅치 않은 통유리로 된 건물이 천 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도전이었어요. 게다가 나 차로 된 구 때문에 '굴비'가 들어와 천의 일부가 부풀어버리기도 했죠(웃음)." 아무리 세심한 실측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도 결국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하는 그는 전시회 개막일 전날, MKZ 프로젝트를 위한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다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만 이러한 난관에 극복하는 '노하우'가 생겨 보람이 크며 후회했다.

## LRP 2\_by GWON OSANG

### 전통의 자산을 조각조각 이어 붙여 창조해낸 부조의 미학,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는다

한성필 작가의 몽환적인 '일루전'은 전시장 내부로도 이어진다. 공간을 덮고 있는 한쪽 벽면을 그의 중세풍 사진이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강렬하지만 세련된 빨간색 링컨 MKZ와 조각이 멋진 앙상블을 이루는 권오상 작가의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MKZ 로고가 박힌 부조 작품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척 보기에도 공들인 수공예 작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링컨이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1930년대부터 2013년까지 브랜드의 역사를 상징하는 각종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아낸 뒤 콜라주 타입의 부조로 창출해낸 것이다. 튀지 않게 살짝 빛나는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금박은 '진짜'라고 한다. 모빌처럼 움직이지는 않기에 권 작가가 스스로는 '매단 작품'이라고 불렀다. 영국의 인기 록 그룹 키(Keano)의 3집 앨범 슬리브 디자인을 맡아 지구촌 차원의 화제를 이끌어내기도 했던 권 작가는 평면인 사진을 이어 붙여 입체적인 조각으로 빛나는 '사진 조각'이란 장르를 개척해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좋아하는 영국 아티스트 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자 20대에서 70대의 이미지를 조합해 젊은이와 노인의 모습이 공존하는 '권오상 표 호크니 사진 조각'을 만들기도 했다. 독특한 언어를 구사하긴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조각가'다. 사진 조각을 가벼운 조각이라고도 표현하는 그에겐 잡지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오려서 평면으로 세워놓는 '플랫 시리즈'도 간단하고 평평한 조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좌대나 바닥에 놓는, 중력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는 '전통 조각'을 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참신한 시도를 꾀했다. "보통 사진을 3D로 만드는 작업에서는 완전한 곡면이 나옵니다. 이번 작품은 판을 여러 장 붙여 천장에 매달았는데, 앞뒤로 감상할 수 있는 부조 형식이죠. 어찌 보면 제 '플랫' 작업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본을 바탕으로 평소 원하던 실험을 기본 좋게 할 수 있다고 털어놓는 권 작가의 '솔직한 의도' 속에 담긴 '도전 정신'이 아말로 링컨이 원하는 '전통을 토대로 한 창조와 맥이 닿아 있는 듯하다.



## LRP 3\_by EVERYWARE

### 자동차 천장으로 내다보는 동심의 세계, 진정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보여준다

마지막은 가장 역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에브리웨어의 미술 같은 미디어 아트. 공학도와 디자인을 전공한 커플이 만나 틈을 꾸린 이들의 작품 세계는 상큼 발랄하다.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강요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늘을 건드려면 구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동심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시킨 '클라우드 핑크(Cloud Pink)'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예다. 위로 손을 대면 구름이 '인터랙티브'한 조합을 창출해내며 움직인다. 원리는 쉬워 보이지만 그 밑에는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다. 마치 복잡다단한 내부 시스템을 근사하고 정제된 디자인으로 승화하는 자동차의 미학처럼 이들의 미디어 아트에도 탄탄한 내용이 뒷받침돼 있기에 단순한 즐거움을 넘겨 선사할 수 있다. 이들은 링컨 프로젝트에서 핑크 클라우드를 활용했지만 진부하지 않게 참신한 요소를 재기 있게 뒀다. 그것도 자동차라는 소재에서 출발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역동적인 경험의 특성을 투영했다. MKZ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루프를 장착했다는 점에 착안해 승객이 차량에 탑승하면 천장 유리를 통해 핑크빛 구름의 움직임을 만끽할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처럼 '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좌석에 앉아 발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머리 위에서 임의의 구름 층이 펼쳐지는 걸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재미나다. 자동차만이 전해줄 수 있는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 하늘에 날라는 연이 연상되는 스크린을 설치할 때도 천을 지탱하는 틀(frame)로 투명한 튜브를 선택해 걸로 보이지 않게 안에 바카 넣음으로써 전혀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고 자동차에 어울리는 유선형의 느낌을 살리는, 섬세한 손길도 곁들였다. 바로 이렇게 살아 숨 쉬는 자질한 디테일과 체험의 미학이아말로 이들이 빛내는 '귀여운 혁신'의 요체일 것이다. 에브리웨어의 방현우, 허윤실 작가는 링컨 리이미진 프로젝트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꽤 의미 있는 회화를 던졌다. "링컨처럼 연륜 있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자유로움과 여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고집이 강한 애매한 연애에서 벗어나 70~80세가 되면 오히려 더 개방적인 자세로 참신한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경험의 내용이 없이 추구하는 자유와는 또 다른 일종의 '여유로움'이죠. 사실 참신해야 한다는 틀 자체도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경계 너머를 내다보는 창조적 혁신'은 전통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륜을 바탕으로 한 '비움의 미학'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에디터 고성연**





# the lady's Automatic

스위스 워치를 대표하며 오랜 명성을 쌓아온 오메가가 현대 여성에게 새로운 시계의 의미를 부여한다. 바로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오토매틱 워치, 레이디매틱을 선보이는 것. 지난 12월 오메가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역사적인 뮤지엄 피스를 전시하며 여성 워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다. 오메가의 시간은 지금 오로지 여자들을 위해 아름답게 흐르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오직 여자 을 위한 기계 워치

손목을 감싸는 미세한 진동음, 제각각리는 초침 소리, 착용해야만 멈추지 않고 시간을 알려주는 도도한 매력. 바로 오토매틱 워치만의 특성이다. 물론 시계를 구입할 때 반드시 오토매틱 워치를 고집하는 여성은 아직 많지 않다. 하지만 단정한 손목에 진동이 느껴지는 기계식 시계를 착용한 여성이라면 취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안목을 갖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메가는 기계식 시계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만의 마스터피스를 갖고 싶어 하는 특별한 여성을 위해 레이디매틱 신제품을 소개하는 론칭 이벤트를 국내에서 개최했다. 여성은 오로지 아름답지만 한 위치에 매료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 시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이 아름다운 파티의 첫 번째 이벤트는 스위스 본사에서 온 뮤지엄 피스의 전시. 빈티지 워치의 특별한 매력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시계들은 약 40년 만에 스위스를 떠난 오메가의 고귀한 유산이다. 1955년 최초의 레이디매틱, 그리고 1920년대부터 사랑받아온 여성용 워치 뮤지엄 피스를 선보이며 여성 시계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1955년 처음 출시된 레이디매틱 워치는 특유의 여성스러운 우아함과 높은 품격을 고수하며 한 세대를 풍미했다. 그 시절 레이디매틱은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름 34mm 다이얼 사이즈에 비해 훨씬 작았으나 아름다움은 그대로다. 첫 번째 버전은 레드 밴드를 매치한 클래식한 디자인이며, 1956년 선보인 두 번째 디자인은 벽돌 모양의 브레이슬릿을 매치했고, 1958년에는 골드를 꼬아서 만든 레드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좀 더 화려한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스토리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일반적으로 남성만이 기계식 시계, 오토매틱 워치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고, 1955년 처음으로 선보인 여성용 오토매틱 손목시계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마크 콜롬(Marc Colomb)이 만든 칼리버 16AR-SC-455는 무브먼트의 부피가 1.196cm<sup>3</sup>에 불과해 오토매틱 칼리버를 장착한, 세계에서 작은 시계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 무브먼트는 사이즈가 놀랄만큼 작지만 뛰어난 디자인과 완성도 높은 부품 덕분에 정확성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점이다. 당시 일반적인 남성 시계에서도 얻기 어려운 크로노미터 타이틀을 획득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기술적 성취가 여성 시계를 판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음에도 오메가는 이 뛰어난 성능의 작은 여성 시계를 공식 크로노미터 테스트 기관에 의

뢰해 전 컬렉션의 상층이 뛰어나다는 스페셜 코멘트와 함께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결국 이 첫 번째 여성용 레이디매틱은 정확성 인증을 획득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시계가 되었으니 오메가의 기술적 집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레이디매 , 전 적인 이름의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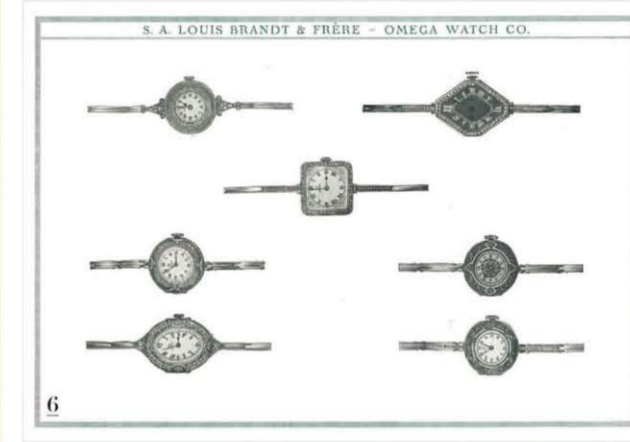
상반될 것만 같은 2개의 단어, 레이디(lady)와 오토매틱(automatic)을 합성해 만든 오메가의 여성 워치 컬렉션 레이디매틱(Ladymatic)은 현대 여성 시계의 아이콘이 되었다. 레이디매틱은 여성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첫 번째 셀프와인딩 시계 중 하나이며 앞서 이야기했듯 오메가가 지금까지 선보여온 제품 중 가장 작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컬렉션 이름만으로도 제품의 개성과 장점을 그대로 담아내며, 여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셀프와인딩 워치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된다. 오메가의 스텝만 우르하트(Stephen Urquhart) 사장은 레이디매틱이라는 제품명을 현대에 다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지금 레이디매틱이라는 이름은 59년 전 그때와는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지금 선보이는 레이디매틱은 스타일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오메가 기계식 무브먼트의 퀄리티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 디자인했습니다. 이 이름을 되살림으로써 오메가가 오랫동안 여성 고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 알리고, 21세기에 여성만을 위한 기계식 시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2005년부터 오메가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니콜 키드먼 역시 레이디매틱을 대표하는 얼굴로 여성을 위한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이야기한 바 있다.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시계의 무브먼트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게 시계 성능을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죠. 레이디매틱은 이러한 여성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 자체가 최첨단 기술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품이 지닌 과거와 현재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 워치메이 의 성도 여성을 사로잡는 아름다 을 하나로

시계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역사와 전통성이다. 오메가는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며 레이디매틱을 완성했다. 기계식 시계로 기술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었으며 여성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심미적인 아름다움까지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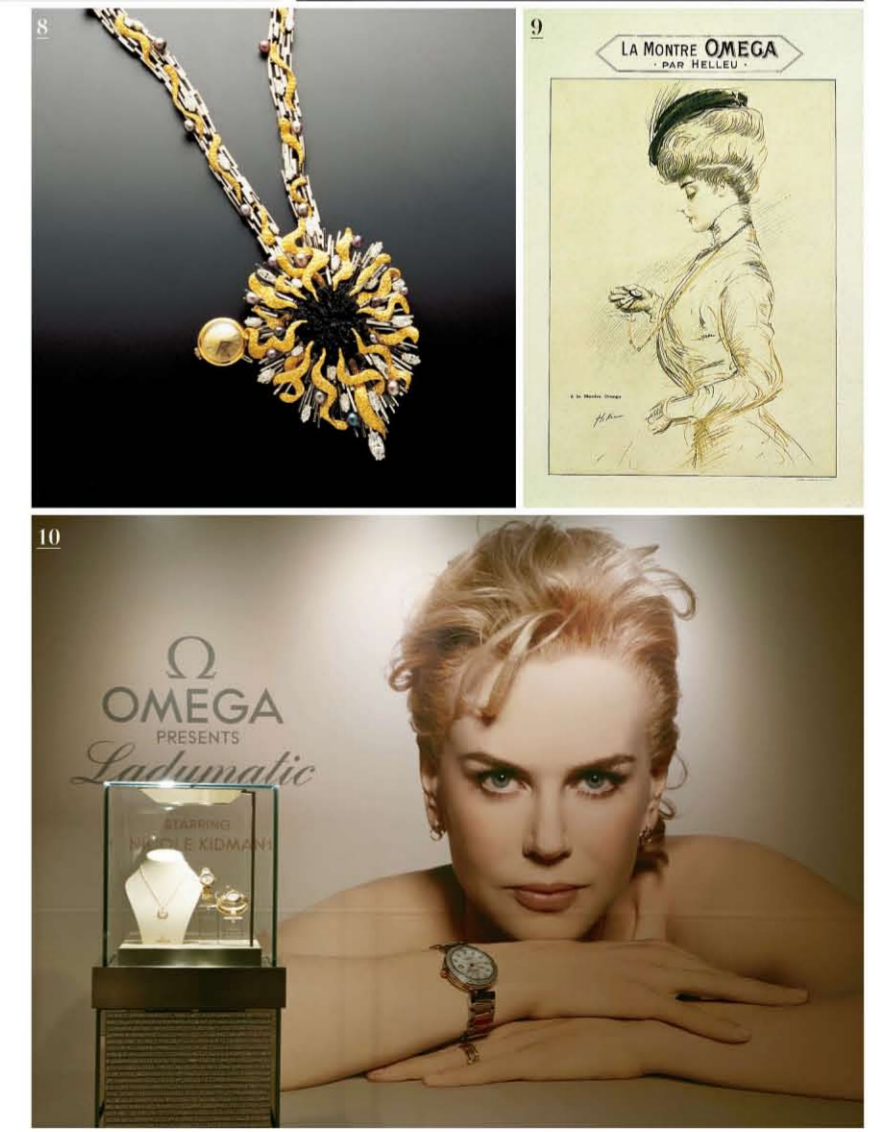


1 2013년 레이디매틱 대표 컬렉션. 스틸과 골드를 함께 매치한 버전과 브라운 다이얼에 새틴 스트랩 디자인, 스카이 블루 컬러 레이디매틱까지 모두 오메가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2 호텔 스타리 디자인의 홀에서 열린 오메가 레이디매틱 파티. 셀러브리티와 오피-앤-리더, 각계 각층의 명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3 클래식 디자인의 오메가 여성 워치 컬렉션을 모은 이미지. 4,7 오메가 레이디매틱 과거 광고 캠페인 비주얼. 5 1950년 발표된 오메가 여성 워치의 광고 비주얼. 6 1914년 초기 오메가의 여성용 시계인 몰리타(Moldavia) 주얼리 네크리스 워치. 1964년 길버트 알베르가 디자인한 오메가의 파인 주얼리 라인으로 몰리타를 목걸이로 진주와 손금을 장식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를 탑재한 여성 셀프와인딩 워치라는 놀라운 비말을 숨기고 있다. 9 1899년 발표된 오메가 여성 워치 컬렉션의 신문 광고 이미지. 19세기 여성의 특징과 시계를 매치하는 방식을 아틀라스 그림으로 표현했다. 10 2005년부터 오메가의 캠페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니콜 키드먼. 11 핑크 자개 다이얼 레이디매틱 워치.



분히 구현하고 있다. 레이디매틱 시계의 동력이 되는 무브먼트는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8520/8521이며, 심장부에는 1999년 기계식 시계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코-엑시얼 탈진 기를 탑재했다. 또 모든 무브먼트에는 오메가의 독점적인 Si14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해 충격과 외부 환경에 따른 영향을 줄여준다. 처음 레이디매틱을 출시한 1955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오메가 레이디매틱 컬렉션의 모든 시계는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코-엑시얼 칼리버의 뛰어난 안정성과 성능 덕분에 모든 레이디매틱 시계의 서비스 보증 기간은 4년에 달한다.

유려한 곡선 케이스에 화려한 다이얼을 매치한 외관은 레이디매틱만의 시그니처다. 화이트, 핑크 자개 혹은 레커 칠한 블랙, 퍼플, 그레이 컬러 다이얼의 중앙에서부터 회오리치듯 펼쳐지는 수퍼노바 패턴은 카리스마와 아름다움을 뽐낸다. 케이스와 조화를 이루는 메탈 브레이슬릿은 특히 받은 버티플라이 버클 3줄 스크루 핀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정교하게 가공한 다양한 컬러의 새틴 스트랩도 출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레이디매틱 컬렉션에 18K 레드 골드와 스테인리스스틸을 믹스한 새로운 모델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는데, 레이디매틱 고유의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켰다. 조금 더 화려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을 추천한다. 다이얼에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흠뻑리듯이 배치한 스노 세팅은 페미닌 워치 디자인에 환상적인 판타지를 더한다. 결국 패셔너블하면서도 뛰어난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한 손목시계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시계가 바로 레이디매틱인 것이다. 스위스 시계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차곡차곡 진지하게 명성을 쌓아온 워치 브랜드 오메가는 시계 역사에 수많은 족적을 남겼다. 이제 오메가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현대 여성에게 '오토매틱 워치'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다. 모두에게 시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여성을 위한 오토매틱 워치 레이디매틱이 이야기하는 오메가의 정신, 그 놀라운 혁신적 메시지는 59년을 이어 21세기에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다.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연





# smartest H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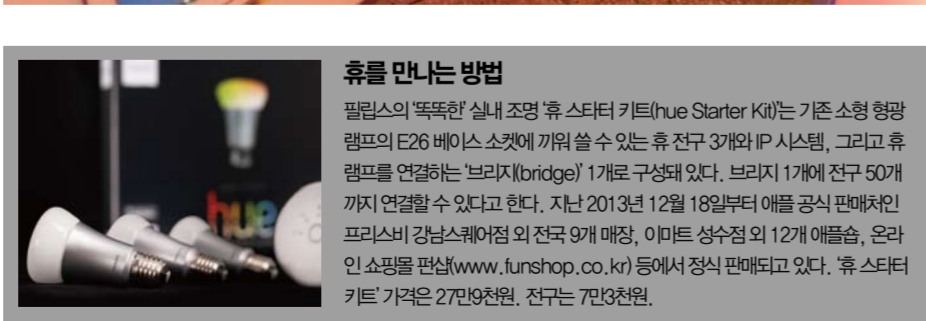
저전력, 고효율, 친환경, 반영구적이라고 할 만큼 긴 수명... LED 조명의 장점은 누누이 강조돼왔지만 사실 써보기 전에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그 매력의 실타래를 풀어보고 싶게 만드는 흥미로운 LED 조명 시스템이 등장했다. 내 입맛과 몸 상태에 맞는 '빛의 미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필립스의 야심작 '휴(hue)'. 얼핏 보면 평범한 전구 같지만, 고도의 지능과 다채로운 재주를 지닌 이 매력 덩어리를 눈여겨보자.

##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LED 조명의 '팔색조' 매력에 주목하라

토머스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을 해낸 것 같지만 이제는 '빛의 세계'에서도 세대가체가 불가피한 듯하다. 그의 발명품이 스머드 백열전구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수명이 짧다는 등의 단점 이외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도 꼽히며 점차 강제 퇴출의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백열등에 비해 효율이 월등히 뛰어난 형광등이 엄연히 버티고 있지만, 이 역시 유해 물질인 수은을 함유하고 있기에 비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가운데 '빛의 반도체'라 불리는 발광다이오드(LED)의 세상이 열리고 있다. 차세대 광원으로 불리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미 우리 일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까지 가격 장벽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LED 조명에는 이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요소가 차고 넘친다. 특히 형광 램프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LED 조명이 요즘 돋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똑똑하다'는 데 있다. 실속 없이 지능만 높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팔색조' 매력과 재미를 뽐낼 수 있는 조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조명이기에 색상과 밝기, 색 온도 등을 기존 조명으로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다채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립스전자가 최근 야심작에 선보인 스마트 조명 '휴(hue)'는 바로 이러한 장점을 한껏 끌어낸 기술의 집약체가 아닐 수 없다. LED가 어떻게 대세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매력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휴는 첨단 조명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사용법은 간단한 편이다. 일단 전용 전구 자체는 예쁘장하지만 평범한 생김새(E26 전구 기반의 등기구라면 장착 가능)인데, 점등을 하면 처음엔 흔한 주황빛으로 켜진다. 하지만 '브리지'라는 별도의 작은 기기를 작동하면 이 전구는 '트랜스포머' 부럽지 않게 변신할 수 있다. 일단 전구의 색상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로 변화무쌍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세밀한 팔색조의 색감을 고려하면 1천6백만 개 이상의 색상이 구현된다고 한다), 기능도 다양하다.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을 할 수 있는 '일몰' 기능, 일정 시간 동안만 켜지게 하는 '타임머' 기능, 취침하거나 기상할 때를 위해 서서히 켜지고 천천히 꺼지는 '베이드' 기능,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

## 평범한 전구가 아니다, 재미나게 똑똑한 조명 '휴(hue)'의 매력

이처럼 영민하기 짝이 없는 조명 기능을 조절하는 도구는 요즘엔 웬만하면 누구나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여기에 아이폰 기반이든 안드로이드 기반이든 휴 전용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게다가 휴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공개되어 흥미로운 각종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컨대 음악에 맞춰 조명의 색상과 조도를 연출하거나 TV 스크린의 색상으로 집안 전체를 물들일 수 있는 앱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휴를 전격 공개한 서울 장충동의 한 행사장에서는 1백 개가 넘는 전구가 디스코 음악에 반응하며 '빛의 댄스'를 펼치는 신나는 장면이 실제로 연출되기도 했다. 기능이 많다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단 앱 내에 저장된 기본 모드 네 가지(휴식, 독서, 집중, 활력)에서 출발하되, 자신이 선호하는 상황에 적합한 '조명 레시피'라고 볼 수 있는 '라이트 레시피(light recipe)'를 하나씩 선택해 저장 목록에 추가하면 되니까 말이다. 재기 넘치는 지구촌 사용자들이 정성스레 만들어 올린 각종 레시피를 무료로 공유하거나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www.meethue.com)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날이 흐린 날에는 푸른 안개에 휩싸인 듯 은은한 환상에 젖고 싶는가?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비로운 푸른색으로 점등하도록 하는 레시피를 '찍' 하면 된다. 조명 하나로 내 집을 '치분한 휴식처'로도, 휴거을 '클럽'으로 변신시킬 수 있으니, 휴야말로 LED 환경이 선사하는 '즐거움·효용'의 본보기가 아닐까 싶다. 문의 080-600-6600 에디터 고성연



**휴를 만나는 방법**  
필립스의 '똑똑한' 실내 조명 휴 스타터 키트(hue Starter Kit)는 기존 소형 형광 램프의 E26 베이스 소켓에 끼워 쓸 수 있는 휴 전구 3개와 IP 시스템, 그리고 휴 램프를 연결하는 브리지(bridge)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브리지 1개에 전구 50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부터 애플 공식 판매처인 프라시비 강남스퀘어점 외 전국 9개 매장, 이마트 성수점 외 12개 매출소, 온라인 쇼핑몰 펀샵(www.funshop.co.kr) 등에서 정식 판매되고 있다. 휴 스타터 키트 가격은 27만9천원, 전구는 7만3천원.



오토매틱 시계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전통과 역사,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갖춘 브랜드를 선택해야 한다. 스위스에서 시작해 천천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건축적 매력을 담은 시계로 눈을 사로잡은 워치 브랜드 미도가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개최하며 보다 특별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95년 전, 시계 장인이 만든 유니크한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 예술과 기술의 모던한 조화, 미도

스페인어로 'Yo Mido(I Measure)', 즉 나는 측정한다라는 남다른 의미의 브랜드명을 지닌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MIDO)가 2013년 11월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스위스 워치메이커 장인으로 유명했던 조지 사렌은 1918년,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브랜드를 꿈꾸며 스위스 졸로투른에 'MIDO G. Schaeren & Co.'라는 시계 공장을 설립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소장 가치를 지닌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해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는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를 선보인 것이다. 아르데코 스타일부터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다양한 위치를 다양하게 선보인 미도는 1934년 시계업계 최초로 안티 마그네틱, 셸프와인딩 무브먼트, 방수, 충격 방지 등 네 가지 장점을 조합한 '멀티포트' 라인을 선보이며 시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멀티포트 라인은 지금도 미도를 대표하는 워치 컬렉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방수 기능을 위해 시계 크라운 아래 특별하게 처리한 코르크를 부착하는 '아쿠아 듀라(Acuadura)' 공법은 지금도 워치 마니아들에게 회자된다. 1954년에는 시계 부품을 16피스에서 7피스로 줄인 파워와인딩 와인딩 시스템을 개발해 시계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무브먼트 개발로 인해 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리하기 쉬운 시계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계로 명성을 얻었다. 유니크한 디자인에 완벽하고 실용적인 위치의 기능을 담은 독특한 아이덴티티는 미도의 브랜드 정신을 대변하는데, 1985년 스위치 그룹에 편입되면서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디자인은 다채로워졌다. 국내에는 이미 2010년 진출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지난 2013년 11월 미도의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신사동 호림미술관에서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 웅장한 건축물의 매력을 시계에 품다

전시장은 95년간 이어온 미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전통을 한눈에 보여주는 '히스토리 존',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존'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미도의 다양한 워치 컬렉션. 미도의 광고 비주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이에 영감을 받은 위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파리 에펠탑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한 커맨더(Commander), 프랑스 렌 오페라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감성의 바론첼리(Baroncelli),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감성을 담은 멀티포트(Multifort) 등 다양한 컬렉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 그중 정밀한 기술력을 담은 오션 스타(Ocean Star) 컬렉션은 클래식함과 스포티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디자인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도록 오랜 기간 테스트를 걸쳐 제작한 컬렉션이다. 1944년 선보인 오션 스타는 미도의 컬렉션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제품으로, 1980년대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기존의 디자인에 클래식함을 더해 시계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미도의 대표 워치 컬렉션인 멀티포트의 장점을 강화해 출시해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미도는 무브먼트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훌륭한 오토매틱 위치를 선보이는데, 스위스 시계 인증 기관 COSC에서 15일 동안 서로 다른 온도, 압력, 위치에서 시계의 오차와 기능성을 측정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고의 무브먼트에 만 부여하는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스위스에서 제조하는 워치 중 단 5%만이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는데, 무브먼트에 새긴 고유 인증 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 높은 무브먼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워치 브랜드 미도의 큰 자신이자 자부심이다. 웅장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적인 디자인에 혁신적인 기술은 담은 미도의 위치는 한 번쯤 오토매틱 워치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02-3149-9599 에디터 배미진



# Shoe required

윤기가 흐르는 매끈한 구두를 신은 남자와  
빛 바래고 구김이 간 구두를 신은 남자가 있다.  
구두만 보고 성공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많은  
이들은 전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서양에선  
구두를 잘 닦아 신는 것이 에티켓일 만큼 잘  
관리한 구두는 사람의 품격을 좌우한다.  
아끼는 구두를 더욱 명품으로 빛나게 할 남자  
구두 관리법,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잘 관리한 구두는 남자의 품격을 좌우한다

1백만대를 훌쩍 넘는 고가의 명품 남성 수제화 시장이 호황이다. 혹자는 무수 구두 한 켤레를 1백만원에 넘게 주고 사느라 손 내 저지르 모르지만, 여자들이 몇 백만원에 달하는 가방에 투자하듯 소위 멋을 아는 남자들은 고가의 명품 슈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이처럼 고가의 수제화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슈 케어(shoe care) 브랜드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구두 밑창의 흠조차 탈지 않는 이들에겐 다소 생소한 슈 케어, 즉 구두 관리라는 그동안 소위 명품 구두 칼라터의 영역이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명품 구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를 오래도록 새것같이 관리하고자 하는 관심 또한 함께 증가한 것. 슈 케어 전문 브랜드 타피르와 콜로닐의 수인사인 C&K 벨류 매니저먼트 그룹 김성환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슈 케어의 개념을 막연하게 구두를 깨끗하게 닦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요즘엔 구두 타입이나 가죽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케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 구두 관리 용품 시장도 저가에서 고가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요구와 수요에 맞게 급격히 성장하고 있죠. 구매 소비층은 명품 구두를 구입하는 20~50대의 남성 고객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최근 매출이 급증한 슈 케어 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 가죽 타입, 컬러에 따른 구두 관리법

구두 관리 용품은 브러시부터 크림, 왁스, 스프레이, 슈 트리 등 가죽 소재, 타입에 따라 수십 개에 달한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슈 케어 입문자라면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수크림을 침투시키고 광택을 내는 데 사용하는 말 털 브러시, 가죽의 얼룩을 제거하는 가죽 클리너, 영양을 공급하고 보색, 광택 효과를 내는 슈 크림, 마무리를 고운 천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슈 케어는 먼저 브러시로 표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거나 광택을 내기 전, 말 털 브러시를 사용해 구두 전체의 물질을 제거한 후 10분 이상 말린다. 구두 왁스나 크림으로 생기는 얼룩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광택이 나지 않음은 물론 구두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어 클리너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 부드럽게 닦아내는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깨끗이 세척했다면 보습과 영양 공급이 필수. 사람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듯 가죽도 마찬가지다. 애플리케이션 브러시(악셀)로 크림을 얇게 구두 전체에 얹고 고르게 도포하고 5~15분 후 천이나 말 털 브러시로 닦아내자. 크림과 왁스는 가죽 색상보다 한 톤 밝은 컬러를 사용해야 구두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브러시는 여러 개를 준비해 크림이나 왁스 컬러별로 달리 사용하고 먼지떨이용과 구분해 쓰는 것도 슈 케어 상식 중 하나. 집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슈 케어에 도전하고 싶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두 컬러에 맞춰 다양한 색의 슈 크림과 왁스를 준비하고, 일반 가죽뿐만 아니라 스웨이드, 악어, 뱀 등 특수 가죽을 위한 용품도 세부적으로 갖추면 더욱 완벽하다. 고급 구두는 바디 역시 가죽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밑창 관리도 중요하다. 구두 바닥을 브러시로 깨끗이 닦아낸 후 바디 가죽용 영양제를 고루 바른다면 구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도 구두의 수명을 좌우한다. 구두를 신은 후 슈 트리를 꼭 사용하고 한번 신은 구두는 24시간 동안 쉬게 하는 것이 오래 신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구두는 여자에겐 시즌별로 구입하는 아이템이지만, 남자에겐 관리만 잘한다면 대를 물릴 수 있을 만큼 타인리스한 아이템이다. 아버지가 문지르고 닦으며 우정을 쌓은 구두를 아들에게 선물하는 일, 정말 멋지지 않은가. 이런 훈훈한 정면을 상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슈즈를 정상상태로 관리하는 자세부터 갖추도록, 에디터 권유진

(향년 일흔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세서 슈 케어 키트 3백15만원 벨루티, 클리닝 기능은 물론 방수 기능까지 겸비한 레드 오일 2만2천원 타피르, 특수 가죽을 위한 방수 & 보습 스프레이 2만5천원 콜로닐, 가죽을 보호하고 광택을 더하는 레드 케어 크림 2만2천원 타피르, 부드러운 양가죽과 양털로 만든 1909 콜라시 콜로닐 4만2천원 콜로닐, 견고한 무드로 제작한 슈 트리 35만원 투름스 by 란스미어, (아래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누백 및 스웨이드용 천연 고무 크레뮌 브러시 2만원 콜로닐, 가죽의 오염을 제거하는 레드 스텝 2만8천원 타피르, 유수분 공급 기능이 뛰어난 슈 크림 1만8천원, 돼지털 브러시 각각 1만5천원 모두 L.C.A by 유.메어, 특수 처리한 가죽의 광택 케어를 위한 레드 폴리시 1만5천원 콜로닐, 5가지 컬러로 구성된 왁스 형태의 래더 밤 2만3천원 타피르, 최고급 폴리싱 브러시 3만2천원 타피르, 다용도 슈즈 브러시 5만원 투름스 by 란스미어, 브라운 컬러 구두와 슈 트리 각각 2백14만원, 26만4천원 모두 스타피노 베베르 by 유.메어

타피르 · 콜로닐 02-514-2757 벨루티 02-3446-1895 란스미어 02-542-4177 유.메어 02-542-0370

도움말 김성환(C&K 벨류 매니저먼트 그룹 대표) 스타일리스트 유현영



GOLF

## inpres X C's

아나운서, 작가 「나는 착하게 돈 번다」 저자 **도현영**님(구력 1년)

### 똑순이 아나운서가 선택 했습니다.

"골프를 배우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가족이 쓰고 있던 타사 제품을 사용하다 사촌언니의 추천으로 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아마하 C's 아이언으로 바꾸면서 좀 더 정확하게 샷을 할 수 있다는 **골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현영

아마하 C's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최고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 editor's Pick

올겨울, 수많은 신제품을 접하는 에디터들의 까다로운 취향을 사로잡은 코즈메틱은 무엇? <스타일 조선티보> 에디터들이 직접 써보고 만족한 뷰티 핫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에센스 수입 브랜드에서 출시 한 발효 에센스라는 독특한 포자신이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 향기도 은은하고 얼굴 전체에 퍼지는 발효성도 뛰어나다. 용량이 많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150ml 13만5천원대.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배미진

크리닉 리페어 레이저 포커스 피부과 레이저 시술에 준하는 효과를 낸다 해서 일명 '레이저 에센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재생 에센스. 피부과 치료 후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나 피부에 갑작스레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세안 후 이 제품 하나만 듬뿍 바르고 자연 놀라게도 다음 날 아침 빠르게 회복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ml 8만1천원. 문의 02-3440-2773. by 에디터 권유진

프로스틴 에메이저 라카버리 앰플 세럼 한 달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주름 개선 전용 앰플. 유통기간이 짧고 냉장 보관해야 하는 냉동화장품인 만큼 신선함이 최고의 무기가. 매일 하나씩 정량 사용하길 안전성은 확실하다. 1mlx28개 12만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배미진

룩시앙 아로마 리페어 헤어 마스크 일단 끈적임이 없고,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샤워 후 샴푸 때 그 잔기가 발취되는데 다른 헤어 마스크와 달리 머릿결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없다. 길어진 머리 끝은 거의 죽어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케어할 뷰티 프로그램에서는 1위를 차지한 제품이다. 200ml 4만2천원. 문의 02-3014-2965. by 에디터 배미진

비비안 웨스트우드 몽 부드와 만년린, 은방울꽃, 머스크가 신나는 투영하고 섬세한 향기가 매력적. 은밀한 여성의 관자놀이에서 연기를 받은 보들 갈라와 디자인이 관능적이다. 성숙하면서도 순수한 소녀를 연상시키는 플로럴 부케의 깨끗한 바누 향이 특징으로, 여성기를 아름답고 싶은 특별한 날에 사용해보길. 30ml 7만5천원. 문의 080-363-5454. by 에디터 권유진

줄리크 에센스 오브 로즈 블룸 프라그런스 오일. 향긋한 향이 필요할 때 손목이나 귀 뒤에 살짝 바르면 내추얼한 로즈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심신 안정,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장미의 이오비타라피 효과로 자기 전이나 피로도 급격히 상승하는 야근 시간에 자주 애용하는 아이템. 11ml 3만4천원. 문의 02-3446-1882. by 에디터 권유진

다들 자드르 파롬드 보디로센 에센스라고 우기던 여성이라면 주목해야 할 감각적인 보디로센. 향에 중점을 둔 파롬드 보디로센이지만 풍부한 보습력을 갖춘 코튼 넥타 성분들 담아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거른다. 자드르 향수의 향을 베이스로 한 보디로센만의 특별한 향을 지녔다. 150ml 8만원. 문의 02-3438-9631. by 에디터 권유진

헤라 셀 에센스 요즘 유행 에센스에 꼭 빠져 있던 터라 토너 대신으로도 사용하고, 에센스 단계에도 열심히 바르고 있다. 함께 들어 있는 알갱이들이 화장실에 꼭 적셔 알기에 올려두면 각질이 생길 염려도 없고 끈적한 크림을 두껍게 올려도 걸림이 없다. 150ml 6만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혜진

라 메르 리프팅 컨투어 세럼 탄력과 주름을 동시에 잡아 매끈하고 팽팽한 페이스 라인을 완성하는 리프팅 세럼. 해양 추출물인 리프팅 펩타이드와 마린 보르소™를 핵심 성분으로 담아 피부 밀도, 윤곽, 선명도를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 너무 러지하지도, 건조하지도 않은 질감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된다. 바르는 즉시 피부가 팽팽하고 매끈하게 달라져 얼굴선이 한결 살아난다. 30ml 37만원. 문의 02-3440-2775. by 에디터 권유진

인생로망 포에버 유스 리카워터 세럼-인-크림 4주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크림. 노화방식을 수정한 바이오 과학 분야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핵심인 글리칸을 바탕으로 한 '글리칸 액티브' 성분! 기존 세럼에 비해 3배 곁속속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하고 싶어 여성에게 추천한다. 50ml 24만원. 문의 080-347-0089. by 에디터 배미진

베네텍트 감미 브라우 눈썹에 관련한 제품이라면 무조건적인 신분을 보는 베네텍트 피트는 눈썹 속을 메워주고 결을 따라 지그재그로 문질러 넣는 독특한 사용법을 가져온 원래 타고난 듯 예쁜 눈썹 색도 모양도 연출할 수 있다. 3g 3만3천원. 문의 080-001-2636. by 에디터 이혜진

에어 이스트리트 비디 오일 by 레오 한겨울엔 보디 크림만큼은 부족하다고 느껴 그 위에 오일을 덧칠하길 좋아할 틈을 주지 않는다. 오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끈적이지 않아 바르기 편하고 웃을 바로 입에도 좋은 만큼 흡수력이 대단하다. 250ml 4만9천원. 문의 02-797-0710. by 에디터 이혜진

멜바타 클로릴 부케 클렌징 마일라 워터 클렌저는 저자로 순화하면서도 깨끗하게 씻어준다. 허는 더욱 깨끗한 제품. 토너라고 해도 믿을 만큼 가볍고 자극적인 향이 느껴지지 않아 화장실을 얼굴에 울리고 있을 것이다. 두달 후 물로 씻어내지 않고 토크 두드려 흡수시키는 게 포인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지울 때도 눈이 전혀 따가워지지 않는다. 200ml 3만5천원. 문의 02-3014-2967. by 에디터 이혜진



**숨37** 2014 해피 뉴 이어 프로모션 숨37가 1월 한 달간 매장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 뉴 이어 2014'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재구매율 1위에 빛나는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 탄생 6주년과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컨센트레이트 크림으로 구성된 '시크릿 리페어 2종 세트'를 비롯해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 정품과 대용량 샘플로 구성된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 기획 세트'를 선보인다. 문의 080-023-7007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 출시** 에스티 로더는 아시아 여성을 타겟으로 한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브팅 트리트먼트 로션'을 출시한다. 자극성에서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유가 체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마이크로 발효 영양소를 담은 워터 에센스로, 침투, 영양, 활성화 3단계 마이크로 피부가 피부의 근본을 탄탄하게 만든다. 문의 02-3440-2772

**다들 2014 스프링 룩** 다들의 2014년 스프링 룩은 18세기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트리아농 궁전의 화려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았다. 파스텔 아이스블로와 블랙 아이언이, 치크 블러셔로 이루어진 메이크업 팔레트를 비롯해 생기 있는 인상을 만드는 어디트 립글로우 등을 선보인다. 문의 02-3438-9537

**사철 2014 스프링 메이크업 컬렉션** 사철에서 2014년 봄을 위한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인다. 태양빛을 담은 선명한 레드 컬러를 중심으로 핑크와 바이올렛, 자주 빛 컬러가 조화를 이루어 양 볼과 입술, 눈매를 산뜻하게 물들인다. 아이섀도우부터 립스틱, 립글로스, 네일 에나멜, 크림 블러셔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했다. 문의 080-332-2700



**SK-II 페이스 트리트먼트 아이 에센스** SK-II에서 '피페라™' 라인의 첫 아이 케어 제품, 'SK-II 페이스 트리트먼트 아이 에센스'를 출시한다. 10년간의 항산화 연구 끝에 탄생한 아이 알파스 콤플렉스와 코코넛 오일 블렌드, 알팔파 추출액으로 이루어져 눈가 노화를 예방한다. 주름과 미세 이종 기능성을 입증받았다. 문의 080-023-3333

**파코리안 원일리언 & 레이다미리언 키체인** 파코리안에서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남자 와 여자를 위한 향수, '원일리언'과 '레이다미리언'을 키체인 파롬으로 선보인다. 파우치나 가방에 탈착할 수 있는 열쇠고리 형식으로 정교하게 만든 보틀에 반짝이는 골드 체인과 열쇠고리가 달려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문의 02-3443-5050

## BEAUTY



##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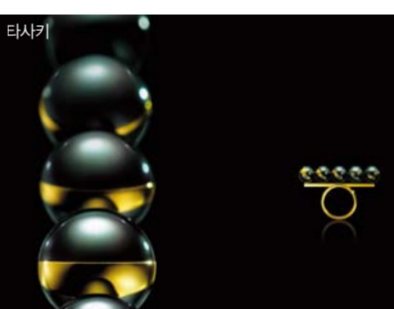


# SHOWROOM



**필립스 스마트 실내 조명 후 론칭** 필립스에서 스마트 조명 'hue'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hue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hue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천6백만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을 하는 타이밍 기능 등을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LED 스마트 조명이다. 정충동 얼빙타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는 hue의 기능과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제품 전시, 시연, 이벤트 공간을 마련했다. 문의 02-514-9006

**포드코리아 역대 판매 기록 경신** 포드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 판매고를 달성하며 2013년 연간 총 네 차례 기록을 경신했다. 익스플로러와 토리스 등 전통적인 포드 스테디셀러의 꾸준한 판매와 올-뉴 링컨 MKZ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14년에는 전시장 수를 총 3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시회 공연 활동들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브랜드로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2-3782-6442



**타사키 밸런스 이글리프스 링** 타사키의 아이코닉 밸런스 링의 새로운 버전인 '밸런스 이글리프스 링'을 선보인다. 진주 표면에 18K 옐로 골드 플래티넘을 붙여 왁스를 표현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18K 옐로 골드의 지름 9mm 남양 흑진주와 18K 옐로 골드의 8mm 아이코닉 백진주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신세 개백화점 본점·강남점·경자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대우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루시에 핑크 다이아몬드 프레젠테이션** 루시에가 삼성동 피크 하얏트 호텔에서 핑크 다이아몬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호주 아일리의 핑크 다이아몬드를 구매 목적으로 선보인 이번 행사에서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경매인 '2013 아가일 핑크 다이아몬드 텐더'에서 직접 낙찰 받은 나석을 비롯해 진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소개해 프레스와 VIP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문의 02-512-6732



**까르띠에 똑똑 워치** 까르띠에가 가죽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똑똑 워치'를 새롭게 선보인다. 로마 숫자와 각 모양의 핸즈, 철길 모양 분 표시, 가요세이얼 등의 클래식한 요소에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버전으로 출시하며, 가죽 스트랩 또는 핑크 골드나 화이트 골드 소재의 화려한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1566-7277

**해밀턴 영화 <잭 라이언:코드네임 웨도우>** 해밀턴 워치가 1월 16일 개봉하는 할리우드 첩보 액션 영화 <잭 라이언:코드네임 웨도우>에 모습을 드러낸다. '잭 라이언' 역을 맡은 크리스 피어슨의 아이코닉 워치인 카키 필드 타타놀과 카키 UTC를 착용한 장면이 곳곳에 등장한다. 해밀턴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영화 예매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문의 02-3149-9593



**미도 브랜드 콘서트 전시회**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가 신시옹 호텔 이트센트에서 브랜드 콘서트를 설명하는 전시회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브랜드의 95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하스토리 존', 미도 컬렉션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존'을 비롯해 3D 영상 아트, 입체 건축을 오브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문의 02-3149-9599

**에르메스 스틸 이브 스텔레톤** 에르메스 워치에서 '이브 스텔레톤'을 제공한다. 2개의 시퍼어이 크리스탈을 통해 시계 내부의 메카니즘과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블랙 핸즈와 오픈워크로 제작된 브러시, 스텔레톤 형상으로 제작한 추를 통해 에르메스 워치의 정교함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2-3448-0728